

南北體育會談

第1次 實務代表接觸 會議錄

1989. 12.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記者會見	97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2.1(金) 10:00~13:10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首席代表〉</p> <p>任 台 淳</p> <p>(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團 長〉</p> <p>장 웅</p> <p>(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p>
<p>〈代 表〉</p> <p>曹 英 承</p> <p>(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代 表〉</p> <p>김 세 진</p> <p>(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p>
<p>朴 秀 蒼</p> <p>(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허 혁 필</p> <p>(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p>

會 議 錄

2. 會議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 (任台淳) : 안녕하세요?

北 (장 웅) :任先生!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南 (曹英承) : 반갑습니다.

北 (장 웅) :曹先生! 안녕하세요?

南 (任台淳) :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北 (장 웅) : 날씨가 오늘은 좀 풀린 것 같은데 쌀쌀했어요.

南 (任台淳) : 어제, 그저께는 조금 추웠었고 오늘은 좀 풀렸는데 우리 體育會談하는 날은 항상 날씨가 좋은 것 같고 또 춥다가 조금 풀리고 이것도 참 좋은 징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 (장 웅) : 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스키」타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南 (任台淳) : 그렇죠.

北 (장 웅) : 이제 지금 준비하는 게 「2차 아시아 겨울철 경기대회」, 3月 9日부터 「삿뽀로」에서 열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눈이 좀 오니까 「스키」 훈련하는데는 지장없겠어요.

그 쪽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南 (任台淳) : 우리側도 「冬季 아시안게임」 준비들 한참 바쁘고, 또 눈이 오면 「레저」 側面에서 「스키」人口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장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전에는 추워지려는 덮어놓고 이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추우면 추운대로 즐거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體育會談이 實務者들이 오늘 만났는데 實務代表接觸이라는 게 실

무자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北 (장 응) : 그럼요.

南 (任台淳) : 그야말로 實務的인 立場에서 더군다나 非公開裡에 하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北 (장 응) : 任先生 얘기를 들으니깐 오늘 이제 成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會談을 빨리 마무리했다라면 사실 겨울철 아시아 競技를 唯一팀으로 갔으면 좋은건데, 事情이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겨울철 경기는 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本會談 이것이 우리 民族에 있어서는 국제무대에 唯一팀으로 나가는 始原을 열어놓기 위한 會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側面으로 봐서도 任先生님 말씀했지만 本會談을 推進하고 加速化하는 의미에서 우리 實務者들의 實務接觸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6名의 어깨가 무겁다 하는 感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任先生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實務接觸 잘 해서 本會談에서 좋은 結實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南 (任台淳) : 전적으로 同感입니다. 그래서 우리 實務接觸을 빨리 進展을 시키도록 해서 本會談이 하루빨리 타결이 돼야, 아마 지금 북경아시안게임을 앞으로 놓고 볼 때 時間이 사실은 넉넉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立場에서는 연말이 가기 전에 基本的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한결같은 바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옛날말에도 『귀뚜라미가 울면, 아 이거 今年이 다 갔구나』 이렇게 들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벌써 오늘이 12月1日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해의 마지막 달인데 마지막 달에 무엇인가 結實을 거둬와야지만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서 좋은 結果를 實踐으로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 (장 웅) : 예, 좋습니다. 그저께 國會會談에서도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
거 뭐 體育會談은 스포츠식으로 나가는데 國會會談이 저서야 되겠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앞장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뒤떨어지지 맙시다.
해서 今年내로 타결하는 方向에서…….

南 (任台淳) : 지금 體育會談을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南
北關係에서 體育分野만 잘되고 다른 분야는 잘 안되고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육분야가 빨리 되며는 다른
분야가 지금 뒤쳐져 있는 분야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또 빨리
되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데 우리가 보조를 빨리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함께 勞力을 하는 그러한 立場을 가지고서 임한다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北 (장 웅) : 任先生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體育會談이 先導者가 되
고 뒤에 떨어진 會談을 우리에게 따라 붙이자 하는 건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南 (任台淳) : 實務的으로 합시다.

北 (장 웅) : 그냥 實務問題 討論합시다.

南 (任台淳) : 이거 뭐 여섯사람이 모이니까 완전히 家族的인 분위기가 되
는군요.

北 (장 웅) : 예. 이거 오손도손 討論할 수 있습니다.

南 (任台淳) : 언제 오셨습니까?

北 (장 웅) : 우리 어제 왔습니다.

南 (朴秀蒼) : 아니, 북쪽 전부 눈이 왔어요?

北 (장 웅) : 아니, 저쪽 山地帶, 高山地帶.

南 (朴秀蒼) : 山地帶만, 예.

北 (김세진) : 양강도, 「스키」장지역…….

北 (장 응) : 산지역 「스키」장들이 있는데, 任先生 討議形式을 實務討議로 직접 들어가지요.

南 (任台淳) : 예, 그렇게 합시다. 實務討議에 직접들어가고.

北 (장 응) : 예, 그래서.

南 (任台淳) : 예, 말씀하세요.

北 (장 응) : 아니,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南 (任台淳) : 먼저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實務討議로 바로 들어가서 實務的으로 우리 뭐 우리가 할 任務라는게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10個項, 10個條項이 있는데, 10個條項을 놓고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일치되어 있고, 合意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實務的으로 다룰려고 하다보면 죽 훑어가면서 뭐 意見이 일치되면 일치되었다, 또 合意되면 合意되었다, 그리고 또 여기 조금 意見差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討議를 나눠보고, 또 토의를 해 보다 意見이 오늘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음에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절충을 해 보자. 이렇게 하며는 效率的으로 되는거죠.

北 (장 응) : 任先生 말씀이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자면 아무래도 일치되는 것은 이렇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討論을 해야 되니까 任先生님 말씀과 같이 討議해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다음번 接觸에서도 可能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4次會談 때 그 合意書 草案을 貴側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次會談에서 選手選拔問題와 관련해서 그 때 내놓은 것으로는 18個項이고 貴側에서 5次會談에서 다시 내놓은 것은 19個項인데, 18個項 중에서 13個項에 대한 그 우리가 同意한다는 意思를 表明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아마 명백치 않은것 같아요. 후에도 朴先生이랑 말씀하시는거 들었는데 그래서 그 討議의 基礎를 저기 合意書 하고 우리가 同意한 그 案을 어떻게 하겠는가? 아니면 그저 貴側의 意見 말씀 마십시오.

貴側에서 5次會談에서 또 이제 立場表明을 죽 하셨는데 거기서 다른 변동이 없는지?

南(任台淳): 그래서 우리 立場을 말씀드려 보려는 우리가 1次會談때 雙方이 그 方案들을 내놓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의견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次會談때 교환경기를 먼저 해가지고 選手選拔을 하자고 하는 부분을 貴側이 共同訓練을 먼저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合同訓練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選手選拔 方法을 講究하는데 대해서 좋겠다 이렇게 提議안을 냈었고.

그리고 우리가 3次會談때 가서 10個條項으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의 立場을 貴側에 전달을 해드렸고.

그래서 3次會談때부터는 각기 10個項을 놓고서 討議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4次會談에 選手選拔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選手選拔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修正案을 냈습니다.

그것은 選手選拔과 관련해서 修正案을 냈던 것은 아시다시피 選手選拔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討議를 해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되는것 같으면서도 무엇인지 불분명한 이런 점들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역시 本會談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짚어놓고 넘어가야지 이걸 덮어놓고 뒤로 미뤄 놓고 하면 또 뒤에 또 가서 意見에 대한 差異가 생겨가지고 옥신각신 해버리고 나면 이게 실천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選拔方案을 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또 방안을 10개항을 구체화해서 낸 방안에 대해서 貴側이 여러個項에 同意를 하는 입장에서 방안을 가지고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그렇죠 뭐. 우리가 애당초 방안을 잘 적에 그 내용이 討議된 內容에 기초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共通點을 찾아가지고 만들고자 했고 또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意見이 一致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는 單一팀 構成 관련해 가지고 이 10개항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側案과 貴側의 案, 貴側의 案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 오신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貴側이 내놓으신 案,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서, 우리 實務적으로 할러니까 정확하나 안하나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그 合理的이고 確實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3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北 (장 웅) : 예. 주십시오.

南 (任台淳) : 이걸 보면서 우리가 討議를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側, 「南北單一팀 構成 關聯 雙方提案 比較表」 北側에 傳達)

北 (장 웅) :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實務代表의 첫 代表接觸인데 지금까지 그저 任先生님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회담과정을 쪽 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會談의 進展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면 우리 다 代表들이니까 알고 있지만요.

한 30여년간 唯一팀 構成을 위한 이런 基本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중요한 問題에서 合意가 이룩되었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唯一팀 構成을 위한 좋은 전망을 열어주었다고 느껴집니다.

실제상 그리고, 그래서 實務問題 討議에서도 보게되면 選手選拔·訓練과 관련한 事項에서도 적지않은 견해상 일치가 있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또 選手選拔 方法, 構成, 共同常設機構 設置 問題 등에서 또 일부 의견상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財政, 費用問題라든가, 身邊安全擔保問題는 지금 쌍방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내용상 놓고 보면 會談에서 方案討議에서 거의다 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엇갈려 있는 選手選拔과 관련한 一部問題들, 이것들도 具體的으로 의견을 나누었지요. 충분히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次會談에서는 貴側의 意見を 살려서 새 案을 合意書에 반영해서 내놓았고 5次會談에서는 貴側이 새로 修正해서 提起한 세부사항 중에서 13個 세부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選手選拔 問題에서 우리가 合意를 보아야 할 조항은 불과 몇가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오손도손 잘 討論해 나가면 10個항項目 우리가 다 이미 定立해 놓은 10個項 討論에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12月22日에 本會談 날짜를 짚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첫 實務代表接觸부터 다그쳐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意思를 표명합니다.

선수선발 문제가 오늘에 온 것 만큼 오늘 基本問題討議에서 任先生 다른 의견이 없다며는 여기에 다 대비표를 해 오셨는데.

南(任台淳): 예. 대비표가 있으니 확실하게 편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北(장웅): 예. 편리합니다.

南(任台淳): 이게 연구하실 내용도 아니고 지난번에 貴側에서 내놓은 것을 나름대로 우리側하고 될 수 있는대로 같은 걸 많이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北 (장 웅) : 그러니까 이제 任先生님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5次會談에서 貴側에서 10個項目을 정립한 이런 內容을 지금 여기에 다 담겨진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 案에 대한 우리의 立場 表明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먼저 任先生님 그쪽에서 10個 項을 죽 내놓으셨으니까 제가 먼저 이 案에 대한 우리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빠르지 않을까요?

南 (任台淳) :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北 (장 웅) : 입장표명을 죽하고 그 다음에 任先生 意見 있으면…….

南 (曹英承) :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괄해서 죽 10個項부터 그 쪽의 이야기를 말로 듣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하시고 나면 우리가 記憶을 잘못하니까 아예 우리는 實務的으로 이 서류가 좋다며는 이 서류의 第1項부터 해서 이야기를 조금하고 지나가고 조금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北 (장 웅) : 그래서 그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貴側의 案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立場을 죽 밝히겠습니다.

먼저 간단 간단히 밝히고 그 다음에 貴側의 要求대로…….

南 (任台淳) : 좋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오늘 우리는 적어도 10個項에 대해서 本會談도 아니고 實務者들의 모임이니까 10個項을 하나하나 죽 훑어내려가면서 검토하게 되며는 사실 검토가 쉬우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會談을 조금 보면 사실 民族的 次元에서 解決해야할 어려운 문제들, 아까 장선생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호칭이나 단기, 단가 이런 問題들이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머지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體育本質問題인데 순수한 意味에서

體育本質問題가 選手選拔이다, 選手訓練이다, 選手構成 이 세가지가 體育本質問題이겠지요.

그리고 비용이라든가, 경비문제 그리고 또 뭐니까? 신변안전보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共同推進機構 構成問題 그리고 기타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行政이라고 할까 支援이라고 할까 保障 이런 의미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나 體育에 있어서 支援·保障이 없이는 체육이 사실 存立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면에서 본다면 共同機構構成 問題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밖의 문제도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것 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討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느 問題만 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부 훑어나가면서 특히 異見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異見을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장선생님께서 지난번 우리 案에 대해서 立場을 말씀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먼저 그것을 들어보고 토론해 나갑시다.

北 (김세진) : 이게, 任先生 얘기한대로 그대로 됩니다.

南 (任台淳) : 그렇게 합시다. 그 立場을 우리가 듣고 討論하도록.....

北 (장 응) : 그러면 우리 立場을 들어보시고 그쪽에서 다음.....

4. 선수선발입니다. 4의「가」입니다. 同意했습니다. 우리 동의한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시하겠습니다.

北 (김세진) : 그러니까 朴先生 그렇게 하자요. 「가」項은 우리 서기장 동지 同意한다니까, 同意한 것은 거기 同意했다하고 이제 意見이 있다는 것은 또 후에 討論하자는 거니까 그걸 거기다 써넣으시요. 우리 合意, 이걸 동의했다.

南 (朴秀蒼) : 意見이 그렇다 하는 것만 우리가…….

北 (장 웅) : 예, 우리 意見을 그저 표시해 놓으십시오.

北 (김세진) : 그럼 그건 後에 討論해보고요.

北 (장 웅) : 그 다음에 「다」項 의견이 있습니다.

南 (任台淳) : 그런데 여기에 同意라고 하는 말씀은 文字 그대로 글짜하나
까지 다 同意했다, 그 말씀이죠.

北 (김세진) : 예. 문항정리는 후에 하고 내용상에서 이걸 더 討論하지 말
고 하자 이거예요.

南 (任台淳) : 基本討議 內容에 대해서 同意하겠다. 그러니까 基本的으로 동
의한 걸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北 (장 웅) : 아니 내용 다 同意했다 단 말입니다, 內容 다 同意합니다. 그
래서 문안정리, 왜냐하면 표현상 貴側하고 다르게 있으니까…….

南 (任台淳) : 내용에 同意한다.

南 (曹英承) : 사실 나중에 이런 條項으로 된 文章들은 토씨하나도 중요할
때가 있기는 있으니까요. 전체 줄거리를 同意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北 (장 웅) :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北 (허혁필) : 그쪽에서 「11회」, 우리쪽에서 「11차」 이거는 후에 가서 합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면 되겠습
니다.

北 (장 웅) : 그러니까 「競泳」하면 우리는 「수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도」하면 우리는 「역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南 (任台淳) : 그거다 우리가 쓰는 말이고 조금 差異가 나는 부분은 서로
편리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北 (장 웅) : 「다」項 우리 意見 있습니다.

南 (朴秀蒼) : 「다」項에는 異見이 있고…….

北 (장 웅) : 다음 「라」項입니다. 「라」項에서 「記錄種目」 (가) 『記錄種目은

육상, 경영, 역도, 양궁, 사격, 사이클, 조정, 카누, 요트, 골프 등 10
個 종목으로 한다.』다른 의견 없습니다.

南 (任台淳) : 이견 뭐 종목명칭을 적어놓은 것이니까.

北 (장 웅) : 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 『選拔戰의
記錄을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合同訓練 기간중의 評價記錄도 고려한다.
』同意합니다. 이견 意見一致입니다.

(다)項에 약간 조정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체점제종목입니다. 체점제종목, 체점제 종목에서 (가)項 『체조와
다이빙, 우슈 등 3개종목으로 한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일치됩니다.

(나) 『選拔戰의 點數를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合同訓練 기간 중의
평가점수도 고려한다.』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다)項인데 『細部種目別 出戰選手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南
과 北에서 각기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되도록 한다.』 여기에 의견 있습니
다. 여기에 좀 調整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맞붙어 승부가르기, 鬪技種目 5個種目으로 하다. (가)項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一致됩니다. 『복싱, 유도 레슬링의 경우에는 選拔戰을 실
시하여 우승을 거둔 선수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합동훈련기간중의 평
가내용과 국제대회전적도 고려한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펜싱의 경우 다른 의견 없습니다.

(라)項 「카바디 경기」, 다른 의견 없습니다.

球技種目 (가)項 의견일치 합니다.

(나)項 여기 의견을 아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의견 있
습니다.

(다)項 의견 없습니다.

그다음 選手選拔에서 「마」項이 되겠습니다. 『어느 일방에 特定種目的
選手가 없거나 적합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를 보

유하고 있는 측에서 선발한다.』 일치합니다.

「바」입니다. 『선수선발의 구체적 방법, 선발전 시기, 경기용 기구, 경기 규칙, 심판선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일치합니다.

南 (任台淳) : 「바」項도 우리案과 일치한다.

北 (장 웅) : 예. 다음 選手訓練. 전부 일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통째로 우리 받아들입니다.

南 (任台淳) : 통째로 받아들였습니다.

北 (장 웅) : 選手團 構成입니다. 선수단 구성 「가」 의견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項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項에 우리 이미 意思 표시한 것 같이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討論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項에 우리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좀 討論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맞습니다. 「라」項은 맞습니다.

南 (任台淳) : 맞습니까?

北 (장 웅) : 『많은 側이 감독을, 적은 側이 코치를 맡도록 한다.』 같습니다.

그다음 「마」項 입니다. 『본부임원은 쌍방의 선수비례에 따라 구성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여기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項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은 가능한 한 균형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구성한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選手團 經費, 여기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가」·「나」·「다」 다 그러니까 선수단 경비에 그저 다 同意하면 되겠습니다.

身邊安全保障, 다른 의견 없습니다.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가」項 『쌍방은 단일팀구성 및 참가문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協議·推進하기 위하여 「단일팀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의견이 맞습니다.

다음 「나」項 『15日 이내에 구성한다.』 맞습니다.

「다」項 『공동위원회는 쌍방 올림픽위원회 및 경기단체 대표로서 각 10명 内外로 구성하며, 南北각기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같습니다.

『共同委員會의 會議는 매월 2회 이상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한다.』

南 (曹英承) : 그것은 우리가 조금 바뀌었는데 잘못 적혀 있군요. 그걸 이렇게 우리 案을 고쳐 주세요.

『공동위원회 회의는 매월 2회 이상』하는 걸 빼고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1회 이상 개최한다.』 「번갈아」 다음에 「1회 이상」, 우리 案을 일단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北 (김세진) : 가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共同委員會 회의는』…….

南 (曹英承) : 두번째 문단에서 「매월」 다음에 나와 있는 「2회 이상」 그 네字를 지우고 그대신 밑의 줄에 「번갈아」 다음에 「1회 이상」으로……

南 (任台淳) : 表現上의 問題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릴테니까요. 貴側 의견하고 별 다를게 없을 겁니다.

北 (허혁필) : 우리 의견이 원래 한번 이상이에요.

北 (장 웅) : 동의합니다.

南 (朴秀蒼) : 2회가 1회로 되었는데 具體的인 說明은 우리가 설명하게 될 때에 드릴게요.

北 (장 웅) : 그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北 (김세진) : 가만 正確하니 하기 위해…….

南 (任台淳) : 나중에 설명을 드릴테니까요.

北 (장 웅) : 「마」項 『共同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다른 의

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는데 여기서 조금 있다 討論할 때 조금 그 쪽의 뜻을 하나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項에서 하나 물어 볼게 있습니다.

南 (任台淳) : 「바」項?

北 (허혁필) : 그러니까 「마」 項은 동의이고 「바」項은 다른 項이니까.

北 (장 응) : 다음 共同委員會 아래에 共同事務局을 다음과 같이 設置·運營한다. 共同事務局 技能입니다. 技能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가)·(나)·(다)·(라).

設置 場所에 우리 의견 있습니다. 設置 場所, 그 다음에 人員 派遣 常駐問題 이것은 의견 있습니다. 토론해야 되겠습니다.

『直通電話를 가설·운영한다.』 동의합니다.

다음 『共同委員會 및 共同事務局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구체적 事項은 쌍방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타 문제. 동의합니다.

이렇게 우리 立場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제상 지금 걸린 問題라는게 選手選拔에서 6個項, 貴側의 項대로 보면 그 다음에 공동추진기구에서, 선수단 구성에서 2개항, 공동사무국에서 2개항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 총9個項이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그쪽에서 만든 이 표에 나온대로 하면.....

南 (任台淳) : 選手選拔 6個項.

北 (장 응) : 5個項.

南 (任台淳) : 5個項.

北 (장 응) : 이 문제 동의한 겁니다. 더 파내려갈거는 없지 않겠는가.

南 (曹英承) : 그쪽에서 同意한다고 그랬지만 우리 表現이 그쪽에 정확하게 傳達되었는지 하는것도 이야기 되어야 되는거니까.

南 (任台淳) : 그래서 내 생각에는 貴側의 意見을 잘 들었고 우리 案에

대해서 많이 研究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實務代表接觸이 두가지가 實務적인 使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하면 지금 同意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 部分에 대해서 本會談時에도 기본적으로 異見이 없다하는 意見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再確認하시는 이런걸로 우리는 理解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될 部分이라고 하는 것이 合意나 意見一致된 事項들을 다시 실무적으로 確認을 하는 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는 異見이 있는 部分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견을 조정하는 두가지 일입니다, 말하자면.

北 (장 응) : 調整해서 妥結시켜야 되는거니까.

南 (任台淳) : 意見이 같으면 같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實務적으로 해야 또 그리고 다른 것은 무어가 어떻게 다르니까 어떻게 調整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두가지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에 맞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생각할 적에 여기 10個項을 쪽 對比한 對比表가 나와 있으니 우선 呼稱問題에서도 基本內容에 合意를 하면서도 그러나 또 서로 意見이, 적어도 合意書를 만든다든가 合意를 完全히 할려면 合意書를 만들도록 準備하는데 基礎作業을 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合意書를 만드는 作業을 할 적에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서로간에 實務적으로 檢討를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對比表의 1項부터 異見이 있고 없는 부분을 짚어 가면서 죽 내려가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장선생님 異見이 없으시다면 우선 呼稱問題에 對해서 우리 表가 나와 있고 지난번에 本會談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文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北 (김세진) : 任先生, 알겠는데 이제 提起한 問題 이거에 대한 다른 것

있으면 하나 맺고 다음 문제 提起된 걸로 넘어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南 (任台淳) : 거기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다른 異見이 없으시면 選手團 呼稱問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意見이 엇갈린 部分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사실상 우리 입장은 『中國語로는 英語發音대로 表記를 하되 「高麗」는 表記하지 않는다』는 말을 合意事項에 넣는게 좋겠다, 文案을 작성할 적에, 合意를 한 건데 또 口頭로만 合意하고 文案에는 넣지 않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게 우리 立場이었는데.

그리고 中國語로는 뭐라고 글자를 쓸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다 그 內容을 提議를 하자 이렇게 提起를 했었고 貴側도 여기에 대해서 研究를 하겠다는 立場을 김형진團長께서 表示를 하셨는데.

우리는 「可里亞」, 「可禮亞」 이건 어느거라도 좋고 貴側에서 研究해 놓은 案이 있다며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檢討를 할 用意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意見을 주시며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北 (장 웅) : 中國말 表記 問題가 지금 원래 1, 2次, 3次 會談들에서 쌍방이 合意한건 우리말과 共用語로 되어 있는 아시아올림픽理事會 OCA綱領으로 되어 있는 英語로 表記하자 그렇게 合意가 됐는데, 이건 議題밖의 問題인데 任先生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中國語 表記問題가 이미 本會談에서 團長들이 둘이 가서 解決하자 이런 問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건데 이것 꼭 여기에 다 넣어야 될 事情이 있습니까?

南 (任台淳) : 아니 뭐 事情은, 무슨 말씀을.(雙方웃음)

南 (朴秀蒼) : 事情이 있지요.

南(任台淳) : 우리 實務者들 이야기를 事情이다 表現하실 수 없고, 지금 合意를 하기를 우리 代表들 다 參席을 한 가운데 會談을 했기 때문에 다 오고간 이야기는 서로가 다 아는것이 아니겠습니까?

北(장 응) : 그쪽에서 조금 달라졌구만.

南(任台淳) : 달라진게 아니지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南(朴秀蒼) : 5次會談때 내용은 그대로예요.

南(任台淳) : 5次會談때 내용은 글자 그대로 하나도 우리 안바꿨습니다, 5次때 내용은거고.

이것은 뭐냐면 雙方間에 合意를 이룩한 것을 가지고 文章化한 겁니다. 선수단 호칭에서 「가」項은.

적어도 中國語로는 英語發音대로 表記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雙方間에 團長間·首席代表間에 合意를 봤던거고, 또 「高麗」로는 『그거 왜 表記를 하겠습니까. 高麗로는 表記 않는 거지요』 말씀을 하셨던거기 때문에 이것을 明白하게 合意했다 하고서 우리가 해나가자 하는거지 口頭로 合意한 것을 文書化를 못 할 또 事情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文書化할 수 있는 土臺를 만들어 놓자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項의 문제인데 中國語로도 영어발음대로 세글자로 하도록 한다는데 合意를 했을 뿐 아니라, 김단장께서도 둘이 손을 잡고 北京아시아 組織委員會에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要求를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거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걸 하나 定해 놓으면 이것도 體育分野에서 다른 分野보다 앞질러 나가자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우리 固有한 글자가 있습니다만 漢文字를 또 역시 아주 버려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이 우리 生活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漢字로 좋은 걸 定해 놓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

리고 北京에서 이번 大會가 열리는데 現實的으로 中國의 글자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南北이 合意해서 지어준 글자로 저쪽
에서 써주면 더 좋지, 『당신네들 나라 일이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
요, 우리는 漢字이름도 없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研究를 안해오셨다면 그걸로 이 項目 넘어가
시고, 研究를 해오신게 있으시다면 더 討論하겠습니다.

北 (허혁필) : 제 생각에 그걸 할 必要가 있겠느냐 해서 안했는데.

南 (任台淳) :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은 조금 너무 消極的이신것 같아
요.

北 (장 웅) : 任先生님! 왜냐하면 이걸 論爭거리가 되지 않겠다.

南 (任台淳) : 우리 論爭은 하지 맙시다.

北 (장 웅) : 왜 그러냐하면 그저 우리가 쓰면 中國쪽에서 쓰겠는데 이제
만일 어떤 생각도 드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討論을 해서 글을
갈라내서 좋은걸로 갖다 쓴다 치더라도 또 中國사람들 側에서는 자기네
대로의 英語發音 表記를 中語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려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또 『아, 우리 싫다』 이래도
問題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考慮를 해야 됩니다.

南 (任台淳) : 이거 왜 싫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單一팀으로 가는걸 받아 들이고 하는데 적어도 이거 다른데에
다 이야기 하자는데 아니고 北京아시아 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다가 提議
를 해가지고 우리가 要求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컨대 個別的으로 私的으로 使用하는데 뭐라고 表示
하느냐 뭐 이런 것을 問題삼자는 것이 아니고 競技大會組織委員會에서
漢字로 競技場에서 구체적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 競技場에서 中國글자로
뭐라고 쓰느냐 이것을 定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가지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그렇게 쓰게 되면 아마 『아 우리 南北의 겨레가 같은 名稱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로구나』, 말하자면 統一이라는게 어떤 意味에서 새롭게 發展的으로 創造를 해나가는건데 그런 側面에서 보더라도 體育分野에서 한번 뭔가 先導者 役割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問題에 대해가지고 뜻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實務者들이 만나도 이런 問題에 자꾸 異見이 생기면 안되죠.

北 (장 웅) :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필요치 않은 論爭꺼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保留합니다. 넘어갑시다.

北 (허혁필) : 또 하고, 또 다음에 해야 되니까.

南 (朴秀蒼) : 예, 여기서도 우리가 이 問題를 넘어간다고 해서 굳이 反對하고 이런건 아닌데 이 問題에 대해서 檢討는 해주셔야 됩니다.

北 (장 웅) : 우리 研究합니다.

南 (任台淳) : 研究하기로 하죠. 研究하기로 하고 아까 論爭을 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여기서 貴側의 意見을 내놓고 우리 意見을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옳다 그르다 자꾸 입씨름을 하는 일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을 하자는 뜻이고.

北 (장 웅) : 任先生님, 오늘 좋은 말씀하시네.

南 (任台淳) : 다만 研究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지요.

北 (장 웅) : 다음 넘어갑시다.

南 (任台淳) : 團旗問題는 異見이 없죠?

北 (장 웅) : 예, 다른걸로 넘어갑시다.

南 (任台淳) : 「가」, 「나」, 「나」項은 사실 地圖…….

北 (장 웅) :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南 (任台淳) : 이 섬들이 사실 이게 또 對外的으로 적어도 우리 섬들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가」, 「나」項에 이걸 다 同意를 하실 수 있는거죠?

北 (장 응) : 예.

南 (朴秀蒼) : 「나」項을 넣는 理由는 아시겠죠?

北 (장 응) : 이거 合意된거니까. 合意된 겁니다.

北 (허혁필) : 이걸 이미 合意한 問題 아닙니까?

南 (任台淳) : 同意를 하시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日本과의 問題가 있지 않습니까?

北 (장 응) : 아, 우리 獨島問題 알아요.

北 (허혁필) : 그런 問題 이야기 안해도 되요.

南 (任台淳) : 論議안해도 우리 겨레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北 (장 응) : 또 그쪽에서 우리 立場 알고 있어야지.

北 (허혁필) : 民族的 立場에 선 사람이야 다 그렇게 하는거지.

北 (장 응) : 자, 그럼 「아리랑」으로 넘어가지.

南 (任台淳) : 「아리랑」은 表現을 貴側 表現대로 바꿔버렸습니다.

北 (김세진) : 노래 다 들어 본 거니까.

南 (任台淳) : 貴側 表現대로 아주 바꿔버렸어요.

그다음에 選手選拔, 여기서부터가 異見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北 (장 응) : 아까 우리 意思表示한거 그건 뺏시다. 빼고 그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南 (任台淳) : 그 다음 봐 나갑시다.

그러면 첫번째 項에 대해서는 글짜 그대로, 사실은 表現은 貴側의 表現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만들어진거고 이거는 거의 表現이 一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그저 用語上에 使利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

北 (김세진) : 같아요. 거기나 우리나라 글짜도 같고 숫자도 같고.

南 (朴秀蒼) : 「가」項에 다른점은 뭐냐하면 우리는 選拔戰이라 했고 貴側은 選拔競技라고 했는데 그意味는, 우리가 그 다음에 選拔戰이라고 하는 것

을 定義를 내려 놓았기 때문에 그건 같은걸로 봅시다.

北 (장 웅) : 선발경기가 선발전이요 선발전이 선발경기, 그렇게 되는거고.

南 (朴秀蒼) :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것이 그게 意味가 다른것처럼.....

南 (任台淳) : 「나」項을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 마지막 段階에서 雙方이 合意하는 一定한 場所·時間·審判및 競技規則에 따라 南北選手間에 公開的으로 實施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貴側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問項을 가지고 오신게 있습니까?

北 (장 웅) : 問項이 아니라 內容上 問題지요.

南 (任台淳) : 內容上 問題가 있다?

北 (장 웅) : 內容上 큰 問題.....

南 (任台淳) : 거기에 대해서 意見을 말씀해 보시죠.

北 (장 웅) : 이 案에 대해서 이미 本會談에서 意見交換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意見交換이 있었죠.

南北選手團間에 公開的으로 實施한다. 이거 公開的으로 競技選拔戰을 해야겠는가? 꼭 公開的으로 해야겠는가 이 問題입니다.

여기에서 意見이 엇갈리고 있는데.

南 (任台淳) : 그럼 이걸 非公開的으로 한다.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北 (장 웅) : 그 다음에 원래 「나」 하고 「다」項, 「다」項이 어디로 들어가야할 項인가 하면 아마 「마」項에 들어가야할.

北 (김세진) : 「바」項, 「바」項.

北 (장 웅) : 「바」項, 큰 「바」項, 괄호없는 「바」項에 들어가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 (任台淳) : 말씀하세요.

北 (장 웅) : 『選手選拔의 具體的 方法, 選拔戰 時期, 競技用機具, 競技規

則』 여기 하나 빠진게 「競技回數」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審判選定 등 其他 細部的인 事項은 單一팀 推進共同機構에서 協議·決定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들어가야할 事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른…….

南 (曹英承) :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選手選拔 項에서 이야기하는 選手選拔戰, 지금쯤은 거의 一致가 됐다고 우리가 確認할수 있긴 있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할 部分이 어디냐하면.

우리가 選拔戰이라고 할때의 選拔戰 석자의 概念은 合同訓練期間中에 많은 訓練을 시키는데 訓練方法이 競技方法으로 하는 것이 있고 體力鍛鍊 이런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많은 訓練方法이 있는데 그 중에서 演習競技라든지 檢閱競技, 評價競技 이런것은 하나의 訓練次元이고 그 이외의 그야말로 一定한 場所·時間·審判·競技規則을 딱 定해서 하는 마지막 단계의 그 競技, 그 競技는 이제 體級競技같은거는 완전히 體重을 다 빼고 경기규칙에 완전히 맞추어서 그야말로 내가 아시안게임에 나갔다가 하는 그런 條件에서의 試合만을 이야기 하는데, 貴側에도 그것은 같은 거죠?

다시물으면 選拔競技라 表現했는데 이 選拔競技속에는 練習競技, 檢閱競技 모든것을 다 포함해서 여기 1項에서 말하는 選拔競技라고 表現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訓練性 競技, 演習, 檢閱 그리고 評價競技 이런 것을 빼고 그야말로 엄격한 國際룰(rule)에 따라 실시하는 마지막 단계의 選拔하는 경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걸 한번 討論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北 (장 웅) : 曹先生님, 그 말씀 포인트(point)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選拔戰이라는 내용이 모자를 어떻게 씌우는가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그쪽에서 말하는 감독·코치 또는 해당 경기단체가 아무래도 소개되게 되겠으니깐 거기서 決定을 해서 그저 이것이 選拔戰이다 하고 눌러놓으면 그것이 選拔戰일겁니다.

그렇겠죠?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選拔競技를 하게 되니까.

南(任台淳) : 마지막 단계에서 選拔競技를, 選拔戰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異見이 없구만요.

北(장 웅) : 예, 그대로 보는게 옳습니다. 異見 없습니다.

選拔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選拔戰이라 해놓으면 選拔戰일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南(朴秀蒼) : 더 쉽게 說明을 드릴게요.

우리가 意味하는 選拔戰이란거는 서울과 平壤을 번갈아 가면서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平壤에서 訓練을 할거 아닙니까. 訓練을 하다가…….

北(장 웅) : 北과 南이 같이 訓練한다 말입니다.

南(朴秀蒼) : 물론 訓練을 같이 하다가 거기서도 選拔戰을 한번 갖자, 어느날 어디서 갖자, 이렇게 南北間에 약속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選拔戰을 한번 갖고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또 어느날 어떤 장소에서 選拔戰을 갖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갖고. 그러니까 마지막 段階라고 하는 意味가 3월부터 시작해서 5月末에 훈련이 종료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5월달 제일 마지막 가서 두번 한꺼번에 하는 그런게 아니고 平壤과 서울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平壤에서 한번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한번하고 또 예를 들어서 1:1이었다.

그러면 평가름이 안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해서 비기면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5月末에 종료가 된다면 5月末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자는 그런 意味는 아닙니다.

南 (曹英承) : 그래서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南 (任台淳) :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더 의문사항을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거를 주문을 하겠는데.

지난번 4次會談 때 김형진團長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側
案에 同意를 하고 意見이 없다고 하면서 共同訓練段階에서는 선발경기가
없다 이렇게도 表現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공동훈련에서는 선
발경기가 없다는 말씀보다는 마지막 단계에서 선발경기를 하게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게 아닌가 이해는 했는데 共同訓練을 한 다음에
選拔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選手를 선발한다.

그러니까 選拔戰을 통해서 優秀한 選手를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선발전을 언제 하느냐 하는 基本的인 事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제 定하느냐 時期를,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잡느
냐 하는 것은 共同委員會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共同訓
練, 合同訓練 段階에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정식으로 하는 選拔競技는
그때에 가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異見이 없으신거죠?

北 (장 웅) :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한다는데 異見이 없어요.

北 (김세진) :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선발전을 한다, 이렇게 우리
定立하기로 오늘 合意를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南 (任台淳) :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選拔戰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물론
意見이 一致되는데 그 다음의 問題에 의견이 있는거지요? 貴側하고 우리
側하고.

그리고 다음에 會談에 여기는 뭐 雙方이 合意하는 一定한 場所·時間
· 審判 및 競技規則에 따라서 한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뭐 異見이 있을
수 없겠죠. 貴側도?

北 (김세진) :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實施한다?

南 (任台淳) : 예. 거기까지 異見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南北 選

手間に 公開的으로 實施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南北 選手間に 한다는 대해서도 또 異見이 없는 것 아닙니까? 事實上 南北 選手間に 하는 것이니까.

北 (김세진) : 그건 뭐 말 하나하나 그저 南北 選手間に 어떠한 形式으로 하든.

北 (장 웅) : 그저 그건 이러저러한 方法으로 할 수 있는거거든.

北 (김세진) : 形式이 여러가지 있다는 것.

北 (장 웅) : 조금 그저 우리 생각하는데는 야박한 감이 약간 있는데.

南 (任台淳) : 뭐가 야박해요?

北 (장 웅) : 뭐 요건 南北이다. 딱 요건 짚고 그런데 우리 그냥 받아들 이겠어요.

南 (任台淳) : 아니 貴側은 北南이라고 해도 좋고.

北 (장 웅) : 아니 아니 요걸 딱 그저 여기까지 놔두고 南北에 요것 間에.

南 (任台淳) : 그러면 이제 그 項에서 남는 것은 그러니까 南北 選手間에까지는 이제 意見이 一致되는 것이고 그러면 公開的이나 아니냐.

北 (김세진) : 거기서 가만 내쫓 이야기를 하겠어요.

南 (任台淳) : 예 말씀하세요.

北 (김세진) : 그래서 이제 任先生 이야기된대로 이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 마지막 段階에 가서 實施한다. 이것까지 合意보자. 나머지 問題에 대해서는 조금 내 理解를 잘못하시기 때문에 이야기 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雙方이 合意하는 一定한 場所·時間·審判·競技規則에 따라 이게 문제거든요.

이건 이 文案上 불 적에 우리 거기 「바」項에 具體的으로 選選拔戰의 方法·時期 뭐 場所 이것 規定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또다 시 場所·時間·競技規定 이런 것 定할 必要가 없다 이거지요. 우리 생

각이 그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서 꼭 정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時間・場所・審判・競技規定問題의 內容이 다르고 바項에서 한게 다른 것.

南 (曹英承) : 그건 다르죠.

北 (김세진) : 같지요. 거기야 選拔戰과 관련된 問題조 이게 다.

南 (曹英承) : 다르죠.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北 (김세진) : 이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文章上으로 볼적에 이거는 나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唯一팀 選拔과 관련된 이 競技에 該當하는 內容들이지 다른게 아니겠다. 그렇다면 저희쪽에 합칠 必要가 있겠다.

南 (曹英承) :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北 (김세진) : 그 다음에 이제 南北 選手間 公開的으로 한다. 이거 뭐 지난 4次, 5次, 3次 때부터 이것 많이 이제 論議가 돼서 이 問題에 대해서 뭐 任先生 이미 그거 合意를 했다고 말씀한 것도 있지만 그거 이 問題와 관련되서 우리의 立場은 뭐인가?

우리는 이거 어떻게든가 이번에 唯一팀 선발을 契機로 해서 우리 민족의 體育技術을 새로운 높은 段階로 이거 올리자는 이런 立場으로부터 出發한 겁니다.

그래 이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많이 안하겠지만 이 選拔競技라는 것은 公開競技도 있고 뭐 非公開 競技도 있고 또 北과 南이 갈라서 하는 方法도 있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합쳐서 이렇게 범벅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方法도 있고 또 무슨 檢閱競技도 있고 또 무슨 選拔競技도 말하자면 評價戰 여러가지가 있고 이런 여러가지 選拔戰 方式들은 다 肯定이 있다는 것 우리 이런 肯定이 있는 것들을 우리 實情에 맞도록끔 다 利用하는게 우리 體育發展에 도움이 되주는 것이지 딱 北과 南이 갈라서 競技를 하자. 公開競技를.

이렇게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 여러가지 좋은 方法은 다 저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할 必要야 뭐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體育發展에 事實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이런 생각으로 부터 이런 立場을 우리 가진거고.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立場은 이번에 우리가 唯一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絶對로 北과 南의 그 보이지 않는 障壁이라도 이를 치든가 이런 걸 쌓든가 이런 일은 사소한 要素도 우리는 없애자는 立場입니다.

왜 이 問題가 우리가 이런 立場을 表明하는가? 이걸 지금 이제 北과 南이 지금 對決이 있고 지금과 같이 이런 對決狀態이고 또 오랫동안 누적된 이런 誤解와 이런 不信들이 있는 이런 條件에서 北과 南이 딱 競技를 하다가 이게 뜻하지 않게 그 어떤 衝突이 誘發될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斷言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사소한 側面에서도 나타나면 우리 唯一팀을 한 意義가 없다.

또 우리 民族 앞에 事實은 우리가 좋게 評價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없게 하자는 이런 立場으로부터 우리가 이거 出發했고.

南 (任台淳) : 아니 이거 김선생 또 아니 뭐 그거 實務接觸에 나와가지고 참 事理에 맞지않는 말씀만 하시는구만.

北 (김세진) : 예. 또 이것 技術을 어떻게든가 빨리 發展시키자는 이러한 立場으로부터 우리가 이것 提起를 한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거는 물론 이 以外에도 이제 많이 說明했지만 이렇게 다 論議되었기 때문에 그 우리 立場을 任先生! 理解를 正確하니 해주시면 합니다. 우리 무슨 選拔戰方法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절대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맞도록끔 잘하자 이런 立場이라는 거.

南 (任台淳) : 여기 曹先生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

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南(曹英承) : 김세진代表 말씀하시는 것 어느 側面에서는 참 理解되는 部分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서로의 意見을 接近시키기 위해서라도 내 意見을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文章上으로 말이죠 『雙方이 合意하는 一定한 場所·時間·審判 및 競技規則에 따라』하는 이 말은 그 用語自體가 「다」項에 있기 때문에 빼고 「다」項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點은 分明히 다릅니다.

『雙方이 合意하는 一定한 場所·時間·審判 및 規則에 따라 한다』라는 原則을 定해놓고라도 그 場所를 具體적으로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細部的인 事項은 바項에 言及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項은 바로 그런 意味이지 여기에서 바로 場所·時間·審判과 一定한 競技規則에 따라 한다는 原則을 여기에서 定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項은 그런 場所를 定해서 한다하는 原則을 定해 놓고라도 具體적으로 『平壤어디에서 서울 어디에서』하는 그런 細部的인 事項은 다음에 여기에서 定한다 하는 그런 意味이기 때문에 相當히 다른 意味를 갖고 있어서 文章上으로 一致되기 때문에 빼야된다 하는 얘기는 이 項을 同意하는 限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南北選手間에 國民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갖는 問題를 두고 뭐 『이게 對決을 조장한다. 또 豫測할 수 없는 어떤 衝突같은 것을 야기할 수 있는 憂慮가 있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南北 和解의 側面에서 우리가 意見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서 體育會談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體育會談을 함에 있어서 根本的인 어떤 基本精神이 뭐냐?

지금까지 다 論議되어왔지만 우리가 다 이야기했듯이 한 세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南北間에 體育를 통해서 和解를 圖謀하고 그것이 멀리로는 祖國을 統一하는데 기여하자 하는 그런 큰 뜻이 前提가 되어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또 그렇게 하기위한 次善의 原則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아 南北單一팀을 構成하는 것이기 때문에 外國에 대해서는 적어도 韓民族의 團合된 優越性을 좀 보여주자 하는 것이 우리 體育人들 가슴속에 있는 하나의 큰 포부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次善의 原則이 뭐냐? 가장 「스포츠」的으로 가장 神聖한 「스포츠」의 精神과 原則에 따라서 이 일을 處理해 나가자.

그래서 選手團도 구성하고 나가서 모습도 보이고 하자 하는 이런 큰 테두리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選拔戰의 問題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세가지 原則中에서 제일 마지막 그 우리의 基本, 基調 그러니까 가장 神聖한 「스포츠」의 精神과 原則에 따라서 하나하나 定해서 다음에 體育人이 보거나 어떤 사람이 보거나 國際慣例의 側面에서 보거나 異意가 없도록 原則을 만들어 줌으로써 다음에 監督과 「코치」를 그리고 選手들이 거기에 따르게 만들어주자 하는데 우리 基本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實務代表接觸을 해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側面에서 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合同訓練期間中에 이제 演習 競技를 한다. 檢閱競技를 한다. 評價競技를 한다 하는 것은 監督과 「코치」가 적절한 方法을 선택해서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 韓民族에 있어서 가장 優秀한 팀을 뽑는다.

이럴 경우에는 구태여 우리가 南과 北이 갈라져 있다. 南에서 제일 우수한 팀이 나온다. 北에서 제일 우수한 팀이 나온다 하는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 입니다.

南쪽 地域에서 제일 우수한 팀, 北쪽 地域에서 제일 우수한 팀이 나왔다. 이것은 바로 韓民族이 가장 그 段階에까지 오기까지 가장 優殊한 팀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 認定을 하고 그 우수한 팀중에서 또 「스포츠」 精神과 原則은 우리가 일단 理解를 같이하자 이것입니다. 내가 「스포츠」人으로서 그것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는 不作用이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次善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아하 이 衝突도 야기할 수 있다. 뭐 잘못하면 和解에 큰 支障을 주는 어떤 要素들이 發生하지 않겠느냐 하는 問題들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補完하는 方法을 우리가 지혜를 짜서 해 나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貴側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南北이 참 오고가면서 合同訓練도 하고 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하나도 안보여주고 그냥 單一팀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國民들이 또 許容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딱 한팀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外國에가서 한 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이 팀을 構成하는 과정에서 서로 털어놓고 어떤 原則 그러니까 「스포츠」 原則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이런 어떤 努力 이 努力을 경주하면서 조금 不作用이 있을때는 그것을 막는 努力도 또 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이 問題가 解決되지 이 모든 競技訓練을 다 國民들한테 보여주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나 理論的으로나 「스포츠」 側面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貴側에서도 너무 衝突惹起 또 對決意識 조장 이런 측면만 자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조금 통넓게 조금 前에 우리 「싱가폴」에서 있었던 그런 事例도 생각해 가면서 생각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 우리가 自信있는 것은 뭐냐하면 例를 들어서 배구경기를 한다. 또 농구경기를 한다 축구경기를 한다. 서울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 試

슴을 한다 했을 때 우리 國民 절대 一方的으로 응원 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計劃적으로 안시켜도 北韓팀이 아주 잘할 때는 박수칠 것이고 정말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우리 民族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우리 國民이 모두다 「과인플레이」를 하면 박수칠 것이고 지면 承服하고 이렇게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側은 事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貴側에서 좀 그런 點을 理解해주셔서 이 問題가 解決되도록 하는 意見接近에 조금 同意해왔으면 싶지않나 생각합니다.

南 (任台淳) : 그저 난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가지 일을 할 것도 없고.

北 (장 웅) : 任先生! 선선하지만 그저 덥시다. 과일 들어왔는데.

南 (任台淳) : 예 그렇시다. 먹으면서 이야기 합시다.

北 (장 웅) :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한 것 本會談에서도 그저, 좀 선선합니다. 이게 좀 선선하구만. 좀 추운데?

南 (任台淳) : 예, 조금 그래요.

南 (朴秀蒼) : 이거 구어와야 되겠는데요?(一同웃음)

北 (장 웅) : 그래서 任先生! 貴側에서 여기에서 무슨 다른 變動할 案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保留하고.

南 (任台淳) : 넘어가는데 내 좀 이야기 합시다. 하여간 이 나項을 設定한 다는데까지는 이제 意見이 一致된 것이죠?

「나」項을 設定하는데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選拔戰은 合同訓練 期間 마지막 단계에서 雙方이 合意하는 一定한 場所·時間·審判 및 競技規則에 따라 南北選手間에 이게 公開적으로 할 것이냐 非公開적으로 할 것이냐는 意見差異가 있습니다만 『南北 選手間에 實施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事實 意見이 一致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선생께서는 뭐 重複되지 않느냐 했지만 이것은 뭐 좀더 霧圍

氣 말하자면 性格을 分明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說明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여기에 選拔戰과 여기 「나」項과 관련해서는 『公開的으로 하느냐 非公開的으로 하느냐』하는 部分에 대한 것만 意見에 異見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北 (허혁필) : 그건 後에 「바」項에서 討論하고요.

南 (任台淳) : 그러니까 公開的이나 非公開的이나? 公開的이나 非公開的이나를 그것을 「바」項에서 討論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北 (김세진) : 거기에서도 여러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제 曹先生이 「스포츠」 精神에서 具體的인 方法은 앞으로 이제 專門家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세가지 原則에 맞게 이렇게 하자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意味에서 볼 때에도 이제 公開냐 非公開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討論하는게 어떻겠어요?

南 (任台淳) : 아니 公開냐 非公開냐 하는 이것은 事實 우리로서는.....

北 (장 웅) : 方法問題에 方法問題예요. 이걸,

北 (김세진) : 方法 形式問題지요.

南 (任台淳) : 아니 장선생! 우리 이거 털어놓고 이야기 합시다.

北 (장 웅) : 方法問題지요. 이거 方法問題니까.....

南 (任台淳) : 事實 이것 選拔戰이라고 한다면 選拔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뭐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事實 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그간만 하더라도 南北間에 事實.....

南 (曹英承) : 장선생님! 이거 굴 드세요.

北 (장 웅) : 예. 이거 추운데 불좀 맵시다.

南 (任台淳) : 조금 이것 말하자면 分斷이 되어있다 보니까 結局 이런 項目도 設定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제 現實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現實은 認定을 하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뭐 實體가 어떻겠습니까? 뭐 現實은 現

實대로 우리가 알고서 이제 하는게 좋겠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다른 意見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項目을 設定할 수밖에 없게되는 것이고 그래서 結局은 뭐 여기에다 이것도 意見一致가 되었는데 뭐 體育競技한다면 그것은 公開的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 그 非公開競技라는 것은 事實 例外的인 경우가 아니고 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非公開裡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우리로서는 納得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部分은 南北間에 重要的 意見差異가 있는 部分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項으로 넘길 性格의 것은 아니다하는 우리 立場은 分明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選手選拔에 貴側은 이것을 形式과 方法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 지금 4次會談 들어올 때까지는 形式과 方法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貴側의 말 表現대로 하면 이것이 選手選拔의 形式과 關聯해 가지고 公開냐 非公開냐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重要的 問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項으로 其他事項으로 그야말로 넘길 事項은 아니고 이 選拔戰에 合意했는데 選拔戰의 性格을 規定하는 가장 重要的 要素의 하나가 公開냐 非公開냐 하는 問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또 이것을 가지고 계속 論戰을 벌이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또 뭐 機會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公開的이나 非公開的이나 하는데 대해서만 意見을 가지고 있고 「나」項에서도 다른 部分에는 異見이 없다. 이렇게 整理를 하면 되겠죠?

北 (장 웅) : 그러니까 原來 그저 이 項이 그저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項이 共同委員會 所管에 屬하는 項이 아니겠는가?

南 (任台淳) : 또 다시 後退하시려고요?

北 (장 응) : 그래서 이거 우선 未決로 남기고 좀더 研究하기로 하고 다음 項으로 넘어가죠.

南 (曹英承) : 그렇게 하죠. 그게 나올것 같습니다.

南 (任台淳) : 자 뭐 貴側에서 또 그렇게 研究하시겠다는데 또 뭐 좋습니까.

南 (朴秀蒼) : 研究하시겠다는 것은 백번 좋은데 우리 立場은 어떤 것이냐 하면.....

北 (장 응) : 아 이제는 그쪽에 그러니까 朴先生! 이거 本會談에서도 이거 한 3~4時間 아마 討論했을 거예요.

南 (朴秀蒼) : 아니 「나」項에서의.....

北 (김세진) : 朴先生! 朴先生 이제 이것 오래 論議했기 때문에 거기 立場도 알고 또 우리 立場도 알아줘야지.

南 (朴秀蒼) : 그래서 지금 이것 分明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北 (장 응) : 우리 朴先生 이야기좀 들어 봅시다. 朴先生 原來 이야기 많이 안하시는 분인데.

南 (曹英承) : 예. 朴先生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南 (朴秀蒼) : 하여간 이 「나」項 아닙니까? 어떤 意味이냐? 北側에서는 솔직히 「나」項은 없게 했으면 하고 願하는 거예요.

우리 立場은 뭐냐? 公開的으로 하느냐, 非公開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研究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또 여기서 그 문제만이 남는게 아니야 이것을 「바」項에서 다룰문제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나하면 共同委員會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共同委員會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것 이것이 우리 立場이니까.

北 (장 응) :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토론된게 아니고, 지금 本會談에서도 많이 討論된 문제니까 오늘 다시한번 자기 立場들을

雙方에서 명백히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南 (任台淳) : 그런데 이게 사실 기본고리가 미진한 상태로 넘어가다 보니까 뭇더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本質에서 제일 重要한 부분입니다.

北 (장 응) : 이제 또 研究하고 相互 接近해 오면 되니까.

南 (任台淳) : 그 다음 부분으로 하여간 넘어가지요.

『選拔戰은 각 종목별로 서울·평양등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이상 실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異見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異見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異見 한번 말씀들어 봅시다.

北 (장 응) : 이거 『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서울·평양등 南北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이상 실시한다』 원래 이것도 共同委員會의 소관에 속하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選拔戰 時期·方法·場所 이런 問題들이 共同委員會 協議·決定事項에 이미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것도 共同委員會에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項을 없애는데 대해서 貴側이 4次會談에서 초보적으로서는 合意가 되었던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南 (曹英承) : 그렇지 않은데.

南 (任台淳) : 그것은 전혀 이해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北 (장 응) :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보십시오.

選拔戰이 『서울과 평양등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회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딱 안될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이 部分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위의 項과 聯關도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例하면, 그쪽에선 이게 實務的인 문제죠? 철저히 實務的인 問題인데, 농구팀이 양쪽에서 選拔, 合同訓練, 그쪽에서 말하는 合同訓練에 망라된 농구팀이 평양에서 訓練한다. 한 選拔戰은 평양에서 두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南 (朴秀蒼) : 아니, 그런 생각이죠?

北 (장 응) : 예, 또 서울에서 두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문제를 구태어 여기다 딱 種目別로 『서울·평양등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것을 딱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자승자박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南 (任台淳) : 아니죠. 내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세요.

貴側은 場所나 回數를 바項에 規定을 해 놓았으니까. 여기다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意見이시죠? 지금이야기가.

뭐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한다는 것도 同意되어 있는거요. 「1회이상 한다」는 것도 問題가 안되는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事實은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한다」하는 말과 「1회이상」이란 말은 具體的인 內容을 規定하자는 問題가 아니고, 具體的인 事項은 多項에서 共同委員會로 委任을 한다하는 結果로 해두고.

그러나 적어도 選拔戰을 갖는 것은 南北의 地域을 往來하면서 한번이 상씩을 북에서도 한번, 남에서도 한번은 하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南北間의 選手選拔을 위해서 選拔戰을 갖는데, 예컨대 서울에서만 選拔競技를 해버리자. 이렇게되면 또 北側 選手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서로 바꿔서 평양에서도 해본다 이렇게 적어도 그런 原則的인 問題를 여기서 規定을 하고 들어가자 하는 이야기이고.

「1회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도의 회수를 規定해 놓자. 「1회이상」이라는 것은 여러차례, 탁구경기나 축구경기의 例를 들을 적에 3번을 해야 할 것인가, 5번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그때 종목별 특성이란가 狀況진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요.

그런 問題는 共同委員會가 해결해 나가면 된다. 具體的인 事項은, 그러나 적어도 「1회이상」은 하자 한쪽에서, 이것은 公平하게 하자는 것이고, 또 選拔戰의 概念을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規定은 해놓고 넘어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나」項과 「다」項은 적어도 選拔戰의 性格이라든가, 概念이라든가, 選拔戰의 形式이라든가 이런것을 總體的으로 規定하는데 있어가지고 아주 本質的인 內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 (장 웅) : 「나」項과 「다」項,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共同委員會所管에 속하는 方法, 時期, 競技用機具, 審判選定, 選拔戰 審判選定 이런 具體的인 事項은 共同委員會가 한다. 여기 具體的이란 말, 具體的인 細部事項이란 이말의 범주가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具體的인 것인가?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具體的인 것인가?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雙方이 지금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본회담에서 貴側 首席代表와 우리 團長사이의 論議된 것을 보면, 그저 選拔戰 競爭을 이제 열번도 할 수 있고 백번도 할 수 있고, 이미 그저 그 內容上 대체적으로 合意된 걸로 알고 있는데,

南 (任台淳) : 그래서 이제.....

北 (장 웅) :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다가서 딱 이것을 이렇게 자승자박하는 식으로 이걸 꼭 박아놓아야 되겠는가 하는 意見입니다.

南 (任台淳) : 자, 한번 설명드려 보세요.

北 (김세진) :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南 (曹英承) : 지금 말씀하신걸 그걸 우리가 연결해서.....

南 (任台淳) :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南 (曹英承) : 結論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選拔戰을 1회도 좋고, 예를 들어서 100회도 좋다. 이렇게 表現을 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中에 演習競技, 檢閱競技, 評價競技 이런것 하고는 別個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또 意見을 같이 했잖습니까?

北 (장 응) : 예.

南 (曹英承) : 이 選拔戰이야말로 정말 國際規則에 따라서 體級競技의 경우에는 완전히 제 體級을 딱 무게를 빼서, 무게를 갖추고…….

北 (장 응) : 지금 그런게 문제라고, 말씀하십시오.

南 (曹英承) : 끝까지 들어보세요. 완전히 國際規格에 딱 맞도록 條件을 갖추어서 하는 그 競技, 이것을 選拔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때에, 그것은 틀림없지요?

選拔戰을 그렇게 規定하는 것은 異意가 없는거죠? 그거 어떻습니까? 그건 좀 이렇게…….

北 (장 응) : 예, 말씀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南 (曹英承) : 그게 틀림없다면, 예컨대 권투경기를 한다. 이럴때 보통은 한 65kg 나가는 사람이 사람이 體級은 내가 55kg 體級이다. 이럴때에 내가 試습을 할때는 보통 딱 직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10kg을 줄여서 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試습을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이렇게 못해요. 그럼 얼마나 할거냐? 적게하자. 조금 많이하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 本會談에서 定해 줘야지요.

南 (任台淳) : 우리가 選拔戰을 몇년동안을 두고 할 것도 아니고.

南 (曹英承) :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공동위원회에 넘겨놓는다. 그러면 그걸 아, 이거 體級競技는 좀 힘이 드는거니까, 한번 정도로 해 끝내자. 또 蹴球競技 같은 그런거는 아주 구경거리가 좋으니까. 國民들 보는 앞에서 열번도 백번도 하자. 이래서하면 結局은 그 論爭때문에 共同委員會가 또 맴돌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적어도 選拔戰,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概念의 選拔戰만은 많이는 못한다. 그러나 最小는 얼마정도 해야된다 하는 線은 定해주어 가지고 共同委員會에 넘기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 規定의 趣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良心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도 가장 스포츠적인 精神과 原則에따라 이 정도의 룰(rule)은, 原則은 定해 놓고 共同委員會에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와 「다」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컨데 「나」에 보면 選拔戰은 무슨 段階에서 雙方이 合意하는 一定한 場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一定한 場所란 무어냐? 合意를 하더라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合意하는데, 아 서울에서만 합시다, 平壤에서 합시다, 이렇게 主張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하면, 「다」項에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서울과 平壤에 번갈아」 이런式으로 「나」와 「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의 條項이다 하는 것입니다. 說明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共同委員會에 넘겨야될 事項이 아니고, 共同委員會에서 具體적으로 選拔戰을 몇번 할 것이냐? 하는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討議가 상당히 쉬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北 (장 웅) : 우리 김세진 대표 말씀하겠습니다.

北 (김세진) : 이제 우리 서기장 동지가 질문한거는 具體的이라는게 어디까지냐? 하는거를 말씀하라는 건데, 이제 曹先生 말씀이 명백치 않는데, 그거 어떻게 그 문제를 理解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도 그렇고, 몇가지 이 문제와 관련되서 얘기하는거는,

우선 이거 『1回以上 實施한다』 이거야 選拔戰을 한다. 우리 規定에

해 놓았으니까. 選拔戰을 한다하면 1回以上 하게 되어있지, 1回以下하는 법은 없다이거지, 選拔戰을 한다 해 놓았으니까. 1回以上이지 1回以下하는 법이 어디있어?

그러니까 이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南 (曹英承) : 아니, 南北이 번갈아 하니까…….

北 (김세진) : 아 요거, 「1回以上한다」하는 文章을 내가 지금 說明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정사실화 된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南北間의 地域에서」 또 이런말이 있단말이에요. 「번갈아」 이걸 뭐 選拔戰競技야 우리 南北關係인데 어느 뭐 三國이 여기들어 온것도 없단 말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소?

또 우리 訓練地域도 다른 項目들에서 北과 南의 그런 기존시설들을 利用하고 다 거기서 訓練도 하게 하자고 다이런 내용들이 規定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틀림없이 北과 南에서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것도 이런 文章上에서 볼적에 다 이거 기정사실화된 문제인데, 이렇게 놓았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異見이 있고.

또 내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면 競技를 어디서 몇번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까 우리 서기장 동지 얘기했지만, 이걸 순수 기술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曹先生도 體育쪽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게 기술문제냐? 기술일꾼들이 訓練하고, 競技하고, 이걸 한개의 기술발전에 주요한 기본 공정이거든 이게, 기본 기술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訓練을 어떻게 하느냐? 競技를 언제 어디서 몇번을 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 選手의 기술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말하면 이런거를 定할적에는 언제쯤 어디서 해야되겠는가 하는 것은 그 지도원들이 우리 選手, 무엇을 언제까지 해결하고, 언젠가서는 이 競技를 한번해서 그것을 檢閲도

해보고, 이렇게 다시, 이제 또 수정안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目的을 가지고 競技날짜를 정하고 반드시 이 訓練공정으로 볼적에도 또 具體적으로 우리가 토대축성단계 訓練이라는 걸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肉體적으로 단련을 해야되고, 기술적으로 숙련해야되고, 戰術적으로 결합을 이룩해야되고 이런 훈련공정들을 우리가 거치고 競技를 합니다.

이런 공정들을 거치는게 언제까지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건 이제 팀이 무너져서 지도원들이 척 보고 결심합니다. 『이건 두달간에 할 수 있구나. 이건 한달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심들을 한 條件에서 지도원들이 언제쯤 경기를 할 수 있으며, 몇번을 하는게 좋겠다.

말하자면 이런 기술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공정은 技術을 책임진 지도원들이 決定해야할 問題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미리 決定해 놓으면, 기술일꾼들이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고 기술발전에 이렇게되면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정사실화도 되었고 내용상으로 이렇게 具體적으로 따지면 지도원들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도원들이 決定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條項을 이걸 共同委員會에서 넘기면, 다 이거 理解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말하는게 이런 일리가 있어서 말하는 거라는 것…….

北 (장 웅) : 저, 이렇게 합시다 김선생님, 김선생님……. 아, 이거 저 충분히 그제 의견교환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보류로 놓고 다음 넘어갑시다.

南 (曹英承) : 아니 아니요. 너무 그렇게 保留를 많이하면 우리 실무대표.

北 (장 웅) : 아니 쪽 내려가 보고 연관되는 問題들이 있으니까.

南 (曹英承) : 좋습니다. 내려가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야, 그건 하고 지나가야죠.

選拔戰에 연습경기나 검열 경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은 하시는 거죠? 장웅대표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選拔戰에 귀측에서 이야기하는 검열경기라든지, 연습경기라든지, 평가경기 이런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北 (장 웅) : 貴側에서 평가경기에 성적도 고려한다는, 뒤에 나오는 것 있어요.

南 (曹英承) : 그렇지요.

北 (장 웅) : 그건 고려하고, 우리 貴側案대로 하자는 거죠.

南 (曹英承) : 장웅대표께서 무슨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확인할려 합니다. 다르게 아니고, 이 選拔戰이야 1회도 할 수 있고 100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때, 과연 우리가 경기, 엄격한…….

北 (장 웅) : 選拔戰이라 했으니까. 명백히 합니다.

이거 다 같이 들었고 選拔戰이라 했으니까.

南 (曹英承) : 내가 의문을 스스로, 내가 몰라서 그럴수도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選拔戰을 100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내용의 選拔戰은 100회정도 한다면 이걸 누구든지 이상하게 생각할거요. 이게 무슨 意味입니까?

北 (장 웅) : 曹先生, 상징적으로 選拔戰으로 몇회하느냐 하는 문제가 本會談에서 論議될 때 貴側 수석대표와 우리 단장들 사이에 상징적으로 오고간 말이죠, 이해됩니까? 오고간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選拔戰은 어디까지나 選拔戰이란 말입니다. 選拔戰은 選拔戰이고.

南 (任台淳) : 그러니까 연습경기는 연습경기고,

北 (장 웅) : 그럼, 검열경기는 검열경기고, 그건 이미 本會談에서 다 합

의된 겁니다. 논의된 겁니다.

選拔戰은 몇번하느냐 지금 딱 한번이상, 평양과 서울을 번갈아 오고가면서 한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 김대표 동지가 이야기를 한건데, 그러니까, 내려 갑시다.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우리 연구하고…….

南 (曹英承) : 아니, 아니요. 그 다음 그 답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選拔戰의 概念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런 選拔戰을 과연 몇번할거냐 하는것을 그냥 共同委員會에 넘겨서는 안되요.

그건 체급경기마다 다르고, 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종목에도 공통되는 그런 원칙은 여기서 정해 줘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體育會談의 대표들이 해야할 일이고, 또 平壤과 서울에서 한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北 (장 웅) : 뜻을 이제 알만한데, 나項과 다項을 共同委員會에 넘길 事項이 아니다. 이것이 貴側의 입장입니다. 우리 알았습니다. 그거 알았으니까, 그거 알았다구요. 그러니까 다음 項으로 넘어갑시다.

南 (曹英承) :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까 김세진 대표가 말씀하신 중에서 「서울과 平壤등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이거야 문서로 표현하나 안하나 當然한 것 아니냐 이런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문서로 표현해도 관계가 없고 또 문서로 表現안하면 다른 異見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어떤것이나, 아 엄격한 選拔戰이야 第3國에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또 다른 어떤 文章作成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런 말들은 쉬우니까 表現해두는 것이 명확하다 하는 취지에서 이 文章을.

北 (김세진) :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거기서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우리말도 일리가 있죠. 그건,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지만 서로 意見일치가 안되니까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좀더 研究합시다.

南 (任台淳) : 보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류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나項을 보류한데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할만해요. 왜냐면 公開냐 非公開냐 하는데 대해서는 異見이 있기때문에 이 「나」項을 合議하는데 보류하겠다고 나머지는 基本的으로 同意를 하지마는 公開냐 非公開냐 하는데 대해서 異見이 있기때문에 討議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보류하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다項에 대해서는 貴側에서 특별한 異見을 말씀하신 것 없었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같은 뜻인데 구태어 規定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이것을 規定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대한 必要性을 우리 曹代表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이 選手 選拔戰과 關聯해 가지고는 基本的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異見은 없다고 하시면서 내용상 이견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共同委員會로 미루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北 (김세진) : 任先生,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상 어떠한 意味가 있다 하는걸.

南 (任台淳) : 거이에대한 異見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탁 잡히지가 않습니다.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말씀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다하는데 이걸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北 (김세진) : 좀더 研究합시다.

北 (장 웅) : 지금 뭐냐면 그 共同委員會 임무사항에 넘긴다는 것들이 꽤

있지요.

南 (任台淳) : 具體的인 사항, 구체적인 事項을 넘기자 이거예요.

北 (장 웅) : 그러니까 具體的 事項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나, 그것이 지금.

南 (朴秀蒼) :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것이나, 어떤 것이냐하면,

南 (任台淳) : 그걸 다시 한번 說明해 드려야되나

南 (朴秀蒼) :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미 알으셨으니까. 그러나

北 (장 웅) : 구체적 기준이,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저 共同委員會에 소관사항에 합쳐놓으면, 거기다 넣으면 되지 않
겠느냐, 우리 意見은 그거니까, 다음 내려갑시다.

南 (朴秀蒼) : 예 알았으니까. 알긴 알았는데.

다項을 왜 우리가 意見의 일치를 보지못하는가 하는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을 모르겠다니까. 나項같으면 公開的이나 非公開적이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데 다項은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번갈
아」 때문에 그러죠? 「번갈아」,

北 (김세진) : 아니 朴先生, 그래서 더 研究를 해서 다음 接觸때 理解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음 접촉때, 그럼 다음접촉때 다시 우
리 理解를 할 수 있도록 큼 또 말씀하겠으니까 오늘은 理解가 잘 안
가지 않습니다 지금.

南 (曹英承) :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알았지만 貴側에서 지금 意見을 이
야기할 수는 없다…….

北 (장 웅) : 아니, 이야기할 수 없다는게 아니다. 우리 意見을 밝혔고,
우리가,

南 (任台淳) : 同意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나. 이거예요. 실무적
으로 이야기하면 비공개니까. 분명하게 이유를.

北 (장 웅) : 저 任先生,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具體的인 事項에 대한 범주가 우리들 사이에 지금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거 첫째입니다. 첫째 공동위원회소관에 들어갈 그 選拔戰 競技 方法, 時期, 場所, 경기용 기구, 심판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는 이 범주가 우리 쌍방간에 일치하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南(朴秀蒼) : 우리는 基準이 분명하죠. 우리는,

北(장 응) : 그러니까 그쪽 基準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혼란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보류하고,

南(朴秀蒼) : 지금 말씀하신겁니까? 아니면 「번갈아」라는 말때문에 그런겁니까? 기준설정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北(장 응) : 그러니까 이것은 共同委員會에 들어갈 問題가 아니겠는가.

南(任台淳) : 자 그러면 내가 確認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구체적이냐 아니냐 概念이 불분명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사실 南北이 지역을 오고 가면서 번갈아 한번씩을 한다는건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선발전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건데.

北(장 응) : 임선생, 계속 이런 같은 것만 계속하겠습니까?(웃음)

南(任台淳) : 이거 들어 보시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이냐 아니냐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異見은 없으신거죠?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데 대해서.

다만 이것을 지금 바項에다가 이것을 規定하는나 안하느냐 하는 쉽게 얘기하면 本會談 事項으로 하지 않고 共同委員會 事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北(장 응) :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共同委員會 任務·機能에 들어가도 충분한 문제다. 우리 立場은 그겁니다.

北(김세진) : 任先生! 任先生! 이제 내가 얘기한게 저기 錄音하는 분이 녹음도 다 되겠는데 좀 가서 한번 연구해보시요.

왜 技術的 問題로, 왜 기술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는가하는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말도 一理가 있다고 할겁니다. 그렇게하고 다음 토론하자 이거예요.

南 (任台淳) : 왜냐하면 實務者들이 相對方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 反對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너무 추상적으로 돌려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北 (장 웅) : 명백하지 뭐…….

北 (김세진) : 任先生, 體育技術 많이 하셨다면 그걸 理解를 못하셔요?

南 (任台淳) : 사실 具體的이나 아니냐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걸 이유라고 보기 힘들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넘기자고 하는데 넘겨야죠. 뭐,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北 (장 웅) : 「라」項입니다. 選拔戰은 각 種目別로 特性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記錄種目 : 記錄種目は 陸上, 競泳, 力道, 洋弓, 射擊, 싸이클, 漕艇, 카누, 요트, 골프 등 10個 種目으로 한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표현상 서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바로 하는거고.

그 다음에 「마」 記錄種目は 選拔戰의 기록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合同訓練期間中の 評價記錄도 고려한다. 다른 의견없습니다.

바입니다.

싸이클, 漕艇, 카누, 요트 團體競技에 있어서는 팀웍이 크게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選拔戰에서 승리한 팀을 선발한다.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싸이클, 조정, 카누, 요트 團體競技에 있어서는 팀웍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긴팀이 간다는 건데, 첫째로 묻고싶은 거는 자전거, 조정, 카누, 요트의 團體競技를 의미했는가? 아니면.

南 (任台淳) : 團體競技만.

北 (장 웅) : 단체경기의 概念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에서 4인, 조정경기의 경우에.....

南 (任台淳) : 個人競技가 아닌것, 1人競技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北 (장 웅) : 4인 조정인 경우에 이 4인 조정이 1등을 했다하면 이 4명이 몽땅나간다?

南 (任台淳) : 몽땅나간다.

北 (장 웅) : 여기에 대해서 좀 意見이 있습니다.

南 (任台淳) : 말씀하십시오.

北 (장 웅) :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貴側에서의 말하는 싸이클 같은거, 진팀에서도 이진팀의 약한 선수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뜻은 그겁니다. 理解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팀에서도 이진팀에도 똑같은 수 없으니까 4명이 다, 그중에서 한명이 약하다 하면 그 사람, 그 선수보다는 진팀에서 잘하는 選手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選手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意見을 좀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南 (任台淳) :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個人競技의 경우는 기록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記錄競技에 있어서, 특히 조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같은 팀이 되가지고 말하자면 장시간의 訓練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는 스포츠 常識上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진 팀을 選拔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더 이상 考慮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고.

또 더구나 이제 우리가 2년, 3년의 期間을 두고서 選拔競技를, 選手 選拔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야 또 훈련을 시켜봐서 더 발전하는 선수가 있으면 또 뭐 섞어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기간이 그렇게 해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적어도 팀웍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을 함께 訓練을 쌓지 않고서는 호흡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種目 上의 특성, 이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기록경기에서 단체경기 만큼은 選拔戰에서 이긴팀을 선발하는 것이 남쪽의 선수가 나가나 북쪽의 선수가 나가나를 고사를 하고 우수한 選手를 選拔한다는 원칙에서 이건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案을 만든겁니다.

北 (장 웅) : 다 하셨습니까?

김선생, 김대표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北 (김세진) : 任先生,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팀웍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이렇게 해야한다고 이게 했는데.

난 專門家입니다. 난 이런 種目を 전문하는 사람인데.

이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자전거다, 그럼 자전거 團體競技를 하는데 자 거기 選手가 團體로 볼적에는 다 괜찮다. 그러나 우리쪽에 있는 선수도 그쪽에 1등, 2등한 選手外에는 3등, 4등한 선수보다는 경기에서 記錄이 월등 앞서 들어갔다. 이런사람이 한사람 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자전거 團體競技다 넣는게 자전거단체, 綜合的인 記錄이 좋은걸로 되는가 앞으로 나쁜거로 되겠는가 여기 무슨 팀웍이 꼭 필요하겠는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南 (任台淳) : 거기에 대해서 좀 專門的인 말씀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南 (曹英承) : 여기 싸이클, 조정, 카누, 요트라고 했지마는 強度는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긴팀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原則을 정함에 있어서 꼭 이렇게 정해야 될 強度는 사이클과 조정과 카누와 요트경기가 조금씩 달라하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볼 때 한마디로 要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例를 들어서 조정의 경우를 例를 들면 「유타포」의 경우.

北 (김세진) : 아, 자전거를 내가 몰었는데 한번 자전거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南 (曹英承) : 예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유타포」의 경우에 다섯명이, 舵手까지 다섯명인데 이 다섯명이 사람은 비록 다섯명이지만 이게 한 몸뚱아리와 같습니다. 흡사 내 혼자 이렇게 「싱글」로 할 때 내팔을, 딴 사람팔을 붙여 한다는거나 그 다섯명 중에서 한사람 떼어내고 딴 사람이 넣는거나 똑같은 意味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이클의 경우에 있어서도, 생각해보십시오.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데 단체추발 같은것 생각해 보세요.

단체추발 같은 경우에는 例를 들어서 陸上 400미터 릴레이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陸上 400미터 릴레이는 바톤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하는 要領 등 요런것 약간 숙달만 하면 되는 그런 團體競技입니다. 그래서 이 400미터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자체만 잘하며는 400미터 릴레이에서 貴側이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측에서 아주 개인성적이 좋은 사람을 넣어가지고 조금 訓練을 시키며는 되지만 사이클 이 단체추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개인이 빨리 들어간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各自 役割이 다 있어가지고, 그 役割이라는 것이 A와 B와 C, D가 상당히 議論해 가면서 호흡을 맞추어서 한 1年, 2年, 3年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 그런 팀웍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런 意味에서는 조정이나 싸이클이나 요트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리가 利害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가장 스포츠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規定을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意見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任代表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별로 異意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 자꾸 얘기를 하는지 저는 理解가 잘 안되는군요.

北 (김세진) : 그러니까 曹先生, 자전거는 명백치를 않지요. 이런 項目들이 지금 보며는 이제와 같이 물론 이제 정도차이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種目に 보며는 이렇게 이거 이 項目이 딱 맞지를 않는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맞지 않는 측면은 이제 曹先生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미 規定한데서 가장 우수한 選手를 選拔하자 이런 原則도 規定했던 말이에요.

아 그러면 조정에서도 뭐 8人조정, 4人조정 다 있지만 뭐 4人조정이거나 8人조정에서 그 이진팀에 記錄上으로는 앞서있어 괜찮다지만 진팀에 몇몇 選手는 肉體的으로보나 技術的으로 보나 競技 그런 精神的으로 보나 모든 측면에서 불적에 좋은 選手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南 (曹英承) :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北 (김세진) : 그런데 이런 選手를 이제 팀웍을 고려한다고 그래서 그 選手를 거기다가 넣어서 팀웍이 찌그러지는가? 안찌그러진다. 이런 選手는 벌써 그런 그 팀웍적 見地에서도 충분한 能力을 가진 選手라 이런 選手들은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選手를 거기다 結合시켜주며는 總體的인 우리팀, 말하자면 北南唯一팀이 아시아競技에서 좋은 記錄을 내면 냈지…….

南 (曹英承) : 내 하나 물어봅시다.

北 (김세진) : 이게 못낼수 없다. 이게 우리 專門家들의 多年間 技術事業하

는 사람들이......

南 (曹英承) : 예 알겠습니다.

北 (김세진) : 그건 백번 천번 정당한거지. 이제 그 물어보셔서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南 (曹英承)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北 (김세진) : 이제 그 一部사람들 얘기 들먹이지 마시고.

南 (曹英承) : 아니 一部사람들 얘기 아니라......

北 (김세진) : 이제 그 一部사람들 얘기 들어면 안돼요.

南 (曹英承) : 내 한번 물어볼게요.

그 조정경기의 경우에 그 「에이트」를 한번 봅시다. 여덟사람이 하는 경우, 그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貴側팀, 우리팀 試合을 했다.

그러면 貴側팀에서 아주 근사하고 참 정말 훌륭한 選手가 있다. 당장 데리고와서 우리팀 중에서 어떤 사람을 빼 버리고 그 사람을 넣었다. 이 사람이 너무나 優秀하기 때문에 만일 배가, 똑바로 가야할 배가 이 사람이 너무나 優秀하기 때문에 저었는데, 왼쪽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

北 (김세진) : 그게 어떻게 優秀한 選手인가?

南 (曹英承) : 말을 들어보세요.

北 (김세진) : 아 그런 선수가 어떻게 우수한 選手예요?

南 (曹英承) :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을수 있는데,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한 팀웍 調整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北 (김세진) : 曹先生님 그건 우선.

南 (曹英承) : 아, 말을 해 보세요. 實務的으로 잘 안다고 그러니까 묻는데.

北 (김세진) : 벌써 맞추지 못하는, 울동도 못 맞추는 選手를 어떻게 우수한 選手라고 봅니까?

南 (曹英承) : 아, 정말 그래 이야기하면 아주, 내 묻는 말에 對答을 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實務的으로 여덟사람이 호흡이 맞도록 조정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해요? 技術者라니까 내 한번 물어봅시다.

北 (김세진) : 그건 選手들이 얼마나 그 準備가 되어있는가 여러 측면에서 技術的으로나 또는 그 競技經驗으로나 또 이제 그런 조정하는 그런 手法이 얼마나 수준이 되어 있는가에서 그건 한 열흘이면 충분히 될 수 있고 어떤거는 우리 한달이내에 다 해요. 그래도 국가팀이라 하며는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예요.

北 (장 응) : 제가 좀 말씀드리지요.

北 (김세진) : 그런 염려는 안해도 일없습니다. 그건 技術陣들이 책임지고 하니까.

北 (장 응) : 제가 좀 말씀드리지요.

南 (任台淳) : 내가 한번 整理 좀.

北 (장 응) : 제가 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南 (任台淳) : 예 말씀하세요.

北 (장 응) : 이번 아세아 漕艇選手權大會 있었습니다.

우리 本會談 主管하는 단장동무하고 우리들 몇이 가서 漕艇指導員들, 코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漕艇에서 이런 경우에, 나도 뭐 漕艇專門家は 아니니까, 漕艇에서 이런 경우에 쌍방선수들을, 만약 南側選手를 뽑아서 우리한테 넣는 경우는 어떤가 물어보니까 우리 指導員들 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必要하다. 있어야 된다는 거.

대체로 이런 漕艇競技에서 選手들을 結合하고 하는게 대체로 어느정도면 心理的으로나 肉體的으로 맞출수 있겠는가. 共同訓練들, 合同訓練들 다른나라하고도 이제 해보는데 해보면 얼마면 되는가 하니까 그저 빠른

選手들은 4週, 4週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구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도 이런 意見을 내놓은거니까 요항은 일단 保留하고 넘어갑시다.

南 (任台淳) : 거 자꾸 保留, 保留하시는데…….

北 (김세진) : 그렇기 때문에 우리 專門家들 애길하는걸 좀 理解해주실건 좀 理解해 주셔야 되었는데…….

南 (任台淳) : 나도 專門家예요. 專門家, 專門家라고 하지 마시고.

北 (김세진) : 다 理解해 주시지 않으니까 말해두 재미 없어요 사실은. 이거 난 이걸 職業으로 하는 사람인데 一生을, 이런거를…….

南 (曹英承) : 나도 水泳選手고, 다 스포츠 다하는 기술자입니다.

北 (김세진) : 曹先生이 그런 技術者면야 그런걸 理解 못하면야 어떻게 技術者라고 하겠어요. 좀 섭섭한데.

南 (任台淳) : 專門家, 專門家 하시면서 김선생 말씀을 하시는걸 보면 김선생이 스포츠인이 아닌 것처럼 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北 (김세진) : 그거 스포츠인 아니다나니까 그렇게 理解한단 말예요 任先生이. 우리 스포츠인들은 참 안타깝단 말예요. 지금…….

南 (任台淳) : 뭐 그거가지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北 (장 웅) : 다 정복을 했으니까.

南 (任台淳) :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記錄種目에서의 團體競技를 사이클, 漕艇, 카누, 요트, 이 네가지만을 이긴 팀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事實은 이 과정에서 이 團體競技는 이거 이외에 많이 있잖습니까? 뭐 우리 김선생 專門家시라니까 잘 아시겠는데, 陸上에서도 이게 사실 繼走라든가, 水泳의 繼走이라든가 참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골프나 洋弓, 射擊도 이제 團體競技 사실 있는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그저 記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이게 말

하자면 팀웍을 필요로 하는 部分입니다.

選手를 이렇게 選手를 우수한 선수를 뽑아놓고 나가지고 다음에 그 선수단을 構成할적에 뭐 南北間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그 均衡을 維持하는 方向에서 뽑는 方法은 規定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부수적으로 補完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共同委員會도 있고 하니까 選手團을 잘 적에.....

北 (장 응) : 사실은 이 問題 자체가 共同委員會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南 (任台淳) : 選手團을 잘적에 가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問題아니나 그래서 적어도 이 項目에 대해서는 異意가 없으신 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걸 뭐, 保留를 하자고 또 하시니까, 이걸 그 程度의 意見을 나눈 것으로 하고 다만 내가 좀 느끼기에는 異見이 없으신것이 옳다고 봐요.

北 (장 응) : 任先生! 任先生, 이 項도 원래는 사실은 이거 共同委員會에 넘겨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南 (任台淳) : 共同委員會에 共同委員會에 넘기다니? 그러면 種目別 特性에 따라서 區分하는 問題를 論議하지 않는거지 基本的으로.

北 (장 응) : 任先生,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갑시다.

南 (任台淳) :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뭐, 採點種目이지 뭐, 『採點種目は 體操, 다이빙, 우슈 등 3個種目으로 한다.』

北 (장 응) : 3個種目으로 한다.

南 (任台淳) : 이걸 뭐, 同意를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괄호 나項으로 가가지고 『採點種目は 選拔戰의 점수를 위주로하여 選拔하되, 合同訓練期間中の 評價點數도 考慮한다.』

이건 뭐, 異意없으신거고. 그 다음에 다項, 『細部種目別 出戰選手가 2

名以上인 경우에는 南과 北에서 各其 적어도 1名씩은 포함되도록 한다』
이건 뭐, 우리가 포함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왔는데.

北 (장 웅) : 예.....

南 (任台淳) :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異見이 있다니까 말씀을 받아보죠.

北 (장 웅) : 『세부종목별 出戰選手가 2名이상인 경우에는 南과 北에서 各其 적어도 1名씩은 포함되도록 한다.』 이 項을 떼내서 뒤에 「마」하고 「바」사이에 넣자는 겁니다. 「마」하고 「바」사이에. 그러니까 이 採點制.....

南 (任台淳) : 그러니까 그대로 살리죠?

北 (장 웅) : 예. 그대로 살려서 이 採點制 種目에만 적용하지 말고 다른 細部種目에서, 한명나가게 돼 있는 것이 있고, 두명씩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細部種目에서 출전선수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저 그런 種目들을 例하면 陸上, 水泳 같은 것 이런 種目들에 다 적용하자.

南 (曹英承) :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保留하자고 했던 「라」의 1에 「다」 이것도 묶어서 그런식으로 表現되게 되는데 그러면 『「다」가 서로 異見이 있 때문에 넘어갔다』하는 것 하고는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合意는 할 수 없고 採點種目에 관한 限, 이 문제가 어떠냐 하는건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北 (장 웅) : 그러니까 「다」는 지금 이것 保留하자, 일단 保留하자.

南 (曹英承) : 아니, 保留하자고 그러지 말고 採點種目에 「다」를, 「다」의 原則이 妥當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그거는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죠.

北 (장 웅) : 아니, 지금 저 曹先生 말씀하는건 記錄種目的 多項 말씀하는 거 아녜요?

南 (曹英承) : 아니 아니, 採點種目에 「다」.

南 (朴秀蒼) : 採點種目에 「다」.

北 (장 웅) : 오, 採點種目에 「다」.

南 (曹英承) : 그걸 아까 말씀대로 「마」와 「바」 사이에 大原則으로 넣어버리면 따라서 앞에 우리가 말했던 異見이 있다하는 部分도 거기에 該當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며는, 뭐라할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우선 採點種目の 「다」項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데 대한 意見만 서로 交換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北 (장 응) : 그러니까 採點種目에만 이 項을 局限시키지 말고 이 項을 떼서 「마」와 「바」사이에 一般原則으로 定立하자는 것이 우리의 意見입니다.

南 (曹英承) : 그렇게 하는 경우에 아까 앞에서도.....

北 (장 응) : 왜 그러면 왜 구태여 이 採點種目에만 이 項을 적용하겠는가.

南 (曹英承) : 아니, 그렇게되는 경우에 자연히 그러면 漕艇, 카누, 요트의 경우에도 그 原則이 적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北 (장 응) : 細部種目, 細部種目.....

南 (朴秀蒼) : 모든 種目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北 (장 응) : 아니, 그저 요트가 여기에 적용되는건 아니지요.

南 (朴秀蒼) : 그렇다면 왜 「마」와 「바」 사이에.....

南 (曹英承) : 그렇다면 따로 따로 해야지요.

北 (장 응) : 記錄種目 이건 뭐, 우리 여기에 밝힌 것 있을겁니다. 記錄種目과 採點制 種目에서 2名이상, 2名이상 따로 따로 參加하자 이거죠.

陸上에도 細部種目 한 종목에 둘이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水泳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는 北과 南에서 各其 한명씩 가자. 이것이 우리의 意見입니다.

南 (曹英承) : 아니, 그것은 앞에 있잖아요? 記錄種目에 보며는.

北 (장 응) : 이걸 一般原則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럼 蹴球, 籠球, 排球에도 다 적용된다는 소린데. 그 뜻은 아니고.....

北 (김세진) :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南 (任台淳) : 그게 一般原則이 될 순 없죠.

南 (朴秀蒼) : 그러니까.....

北 (장 웅) : 그러면 이렇게 定立합시다. 『細部種目과 記錄種目에서』 그렇게 합시다.

南 (任台淳) :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걸 一般原則으로 내놓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妥當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첫째 理由는 뭐냐? 記錄種目的 경우도 그렇고 團體種目的 경우도 그렇고 또 球技種目的 경우도 그렇습니다.

選拔戰을 하게되며는 그 評價가 客觀的인 方法에 의해서 結果가 나와지는 種目들입니다. 그래서 그 結果가 客觀的으로 나와졌는데 그걸 제쳐 놓고서 포함을 시키는 問題를 고려하는 것은 體育技術的 次元에서 본다면 여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範圍에서 가능한 內容에 대해서는 그 項目에 가가지고 우리가 評價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다든가, 진팀의 優秀選手도 포함시킨다든가, 그 내용을 분명히 짚어 놓으려고 하는 立場을 취했습니다.

南 (任台淳) : 그래서 項目을 다른 項目에서는 別途로 定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키는 것이 可能的 部分에서는 다 反映을 이미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다른 項目들을 客觀的인 그 結果에 依存하는 部分이기 때문에 困難하고 또 둘째로는 이미 包含이 可能的 種目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反映을 시켜놓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데 그 採點種目이라고 하는 것은 體操競技만 하

더라도 그렇지요 뭐.

그래서 이제 특히 國際競技大會에 가면 審判을 한사람 두는 것도 아니고 여러사람을 두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각기 自己主見에 따라서 이제 그 點數를 매기는, 놓는 거기 때문에 거 뭐 審判들간에 뭐 點數差異가 나는 경우는 흔히 있는거고 이래서 이걸 綜合을 해가지고 點數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客觀的인 面이 많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몇차례 이제 競技記錄을 보아가지고 이것을 뭐 그 成績이 서로 對等하게 나왔다 하게 되면 뭐 꼭 點數가 1~2點 差가 꼭 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꼭 어느쪽에서만 다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사람 정도는 包畵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案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貴側에서는 그 진팀에다 지금 包畵시키는 問題를 提起를, 한사람씩 包畵시키는 問題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具體的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말씀입니다.

각 그 種目別로 이 項目이 지금 예컨대 이제 그 네가지로 우리가 分類하지 않았습니까? 네군데에다 이 項目을 하나 하나 다 집어 넣어놓고 이걸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고 할 적에 크게 뭐 影響을 줘야될 部分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項目을 넣을 적에 이 項目중에 어느 項目이 이걸 適用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必要가 있겠어요.

우리가 實務會談을 하다보니까 實務會談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거기다 집어넣고자 할 적에 그러면 어느 條項에다 이걸 適用시킬 수 있겠느냐 하고 들여다 보며는 實際適用될 項目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項目을 막연하게 「全體的인 項目으로 집어넣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는 뭐 實務的으로 좀 具體的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것을 別途項目으로 큰 項目으로 올려놓을 必要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異意를 가지고 있습니다.

北 (김세진): 저 任先生! 이제 저.

北 (장 웅): 말씀하십시오.

北 (김세진): 그러니까 任先生! 이제 그 細部條項에서 이래 出戰選手가 두 명이상 參加하는 경우에 北과 南에서 各各 1名씩 가자 하는건 이제 그 豫測에서 原則으로 規定하셨는데 이제 그.....

南 (任台淳): 예, 採點種目の 경우에.

北 (김세진): 말씀에서 採點種目과 같은 경우가 있으면 어느 項目이든가 이걸 明記하자 이자 그런뜻인데.

南 (任台淳): 說明을 해보세요.

北 (김세진): 예. 그러면 여기 이제 記錄種目 놓고 보자 이거지요. 記錄種目 예하면 記錄種目に 역기같은 것도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이제 역기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陸上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다는 말입니다. 記錄種目엔 이런 適用되는게 더러있어요.

南 (任台淳): 아니지요. 아 陸上.....

北 (김세진): 그러나 鬪技種目이나 球技種目에는 이러한 境遇가 극히 없어요. 球技種目 같은데는 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南 (任台淳): 規定上 力道種目에서는 記錄이 名白한 거지요. 記錄이.

北 (김세진): 勿論 記錄이 明白하지요. 記錄. 아 이건 採點種目は 採點이 明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뭐인가 하면 이렇게 明白하는거를 어떤 그 採點別 種目別 種目에만 局限하지말고 다른 種目の 境遇도 이렇게 있으면 같이 適用하자하는 뜻인데 이걸 貴側에서 내놓은 案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南 (任台淳): 그렇게 막연하게 『다른 種目에도 있으면 넣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專門家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具體적으로 다른 경우에 어느 경우에 그게 該當되는게 있는가?

北 (김세진): 역시 안 넣겠어요? 역시 이렇게 있는데 안넣겠어요?

南 (任台淳): 아 力道의 경우도 이걸 그 重量 얼마를 들었는가 하는 것이 分明히 나타나는 것인데요. 무슨?

北 (김세진): 아니, 그런 記錄에서 正確성을 가지고 論議하는 問題가 아니라.

南 (任台淳): 지금 現代科學이 發展해가지고 正確하게 재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北 (김세진): 참 이거 任先生 이거……

南 (任台淳):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뭐들었느냐 못들었느냐」 이거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正確하게 나옵니다.

北 (김세진): 아, 採點別 種目에서는 누가 一等하고 二等한게 만나와서 여기도 넣었습니까. 그러면?

南 (任台淳): 이걸 主觀的 評價方法이다 이거예요.

南 (朴秀蒼): 主觀이 介入된다 이거지요.

南 (任台淳): 主觀, 主觀적으로 評價하는 거다 이거지요.

南 (朴秀蒼): 내가 나가서 評價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点주고 어떤 사람은 9点주고 했는데 그 審判을 바꿔가지고 또 採點을 하라고 했을때 나한테 9点주기도 하고 8点주기도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主觀的인 要素가 많이 介入이 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그것은 2名이 나가는 것이라면 한명, 한명,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나 記錄이라고 하는 것을 正確하다 이겁니다.

北 (장 웅): 자, 任先生! 내가 이야기하지. 問題를……

北 (김세진): 記錄이라는 것도 이자 그런 見地에서 보게 되며는……

南 (朴秀蒼) : 主觀이, 主觀이 介入할 수 없는 얘기에요.

北 (장 응) : 더 研究합니다. 자 研究합니다.

北 (김세진) : 아니 거 뭐 研究할 것도 없어요. 研究할 것도 없는데 자꾸 任先生 지금 이 項目이 좋다. 아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저, 조先生도 응?

任先生! 내말좀 들으라요. 專門家아니라니까니 내 지금 답답해 죽겠어. 당초 理解를 못한단 말씀이지.

南 (任台淳) : 나보다 모르는 말씀만 자꾸하시니 그렇지.

南 (曹英承) : 이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이거 말이지요.

北 (김세진) : 曹先生님! 曹先生이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서 내 말하는 거니까 마저좀 듣고……

南 (曹英承) : 내 다 理解가 갑니다, 다 理解가 갑니다. 細部種目別 出戰 選手가 2名 以上인 경우에는 ……

北 (김세진) : 曹先生님, 曹先生님!

南 (曹英承) : 아, 거 가만히 얘기들어 보세요.

北 (김세진) : 오늘 會談은 좀 信賴性있게 이렇게 해야지 뭐 이 實務接觸 하면서도 남의 말하는 걸 또 가로채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응? 내 우리 말 거기 다들고 우리는 하긴 하는데 ……

南 (曹英承) : 말씀하시요.

南 (任台淳) : 다 끝난 줄알고 이야기하시는 거겠지요.

北 (김세진) : 그래, 그래도 되는겐데, 이자 그 曹先生이 전 問題를 討論할 적에도 또 任先生도 그랬고, 이거 陸上같은 경우에는 거저 「바톤」하나 정확하게 인계를 해주는 問題다. 이런 問題는 뭐 팀웍이 特別히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種目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北과 南의 이런 優秀한 選手들을 넣을 수 있겠다. 이런 意味에서 이자 그 全種目 說明을 하면

서도 專門的으로 說明하셔도 얘기 됐기 때문에 난 이것 充分히 理解하리라고 생각했는데 理解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採點別 種目에서 이렇게 하는 自體를 우리 反對하는게 아니고 여기도 適用하자 여기도 옳다 이거 옳게 봤다.

南 (曹英承) : 바로 그거죠.

北 (김세진) : 그러되 이러한 경우는 다른 種目에도 있기 때문에 다른 種目도 요런 경우엔 다같이 適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意見은 그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한데서 지금 相反되는 意見은 거기는 이 採點別 種目は 點數가 明白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거든요.

記錄種目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지만 記錄이 明白하기 때문에 論議할 必要가 없다. 이거란 말이요. 差異가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項目이 單一팀을 構成하는 하나의 原則으로 規定하는 거만큼 이 原則은 이러한 경우에는 어디든 다 適用하자 記錄이 明白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되고, 여기는 點數가 明白하지 않기 때문에 適用하고 이걸 말이 안된다.

競技에서 點數가 明白히 하지않다 이렇게 問題를 選定하면 競技못하지요 이런 論理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런 備理가?

競技야 하면 點數에 依해서 이렇건 저렇건 勝負가 갈라지고, 順位가 갈라지는게 明白한데.

南 (曹英承) : 이야기가 됩니까? 빨리 整理를 하세요. 要旨가 됩니까?

北 (김세진) : 예. 그러니까 이런 條項등을 다 適用하는게 原則적으로 옳다.

南 (曹英承) : 옳다. 그얘깁니까?

北 (김세진) : 예, 그겁니다.

南 (曹英承) : 거기에 대한 내가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細部種目別 出戰選手가 2名 以上인 경우에는 南과 北에서 적어도 1名 以上씩은 반드시 包含하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條項입니다. 採點種目에서는 그건

뭐 同意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記錄種目에는 그건 適用할 수가 없어요. 왜 적용할 수 없느냐 하며는 陸上 100m의 경우에 우리 優秀한 사람이 4사람, 그쪽에 優秀한 4사람이 合同訓練하다가 기록경기를 거기 最終選拔戰에서 자기 最高의 條件을 갖추어서 한 5번 정도 했다고 합시다.

5번 정도 하는데 貴側의 選手가 5번 다 繼續해서 좋은 記錄이 나왔다 그럴 때에는 原則적으로 그사람을 뽑아야되는데 다만 꼭 이사람만 뽑아야된다하는, 貴側에서 첫째 사람도 둘째도 다 優秀한 選手가 들다 나왔다.

그러면 가급적 그 두사람이 나가는게 옳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 記錄했듯이 그렇게만 選拔戰에서만 한 記錄만 가지지 말고 過去에 評價戰이라든지 演習競技에서도 낸 記錄도 參考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參考를 하는데 그때 參考해봐야 그때 記錄도 또 이 두사람이 最高다 하면 이 두사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하는 2名 以上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 사람을 포함하지하는 이야기는 만일 이런경우에도 適用해버리면 아주 優秀하게 두사람이 評價戰에서도 그렇고 選拔戰에서도 그렇고 分明히 이 두 사람이 나온데도 不拘하고 이 두사람 중에 한사람 빼고 반드시 하나 넣자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만일 이걸 全般的으로 定義한다 그러면 아 漕艇競技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결국 保留하고 말았는데 8名이 하는 경기를 우리가 이겼다해서 반드시 1사람 이상씩은 포함되야 된다면 꼭 그걸 넣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異見이 있다하는 部分하고는 完全히 다르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全體를 거느리는 條項으로 넣을 수는 없고 그 特性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正當

하게 뽑고 正當하게 뽑은 그 選手들이 나가서 國際的으로 優秀한 技倆을 發揮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特性別로 묶어가지고 「그룹」마다 다르게 좀 適用하자 하는것이 우리의 그 記錄이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한번 檢討를 해보세요.

北 (김세진) : 그러면 이자 가만히, 그 記錄種目中서 5번 競技를 했는데 5번다 이겼다. 두 선수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응당 나가야 되겠다. 두 選手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응당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 뭐인가 하면 採點制 種目は 그렇게 안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定하는 겁니까?

南 (曹英承) : 그것은 또 說明을 하라면 내가 좀 드릴게요.

이 採點制 種目は 말이야 솔직히 體操는 몇명입니까? 6名 나가지 않습니다.

6名 中에서 5名 떼어가지고 綜合해서 하는데, 아까 뭐 좀 이야기를 오고가다가 조금 언급은 됐습시다마는 A라는 사람이 오늘 바로 이 時間에 이 時間에 딱 이 規定種目を 다하고 난 뒤에 바로 場所만 옮겨도 또 달리 點數가 나오고, 또 같은 場所에서 하더라도 審判만 다르면 또 點數가 다르게 나온다 이겁니다.

아까 主觀的, 主觀的했는데 主觀的으로 해서 點數가 안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主觀的 評價에 의해서 나오는 點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아 사람이 優秀하다 하더라도 北京에가서 場所만 옮기더라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點數인데, 北京에 가면 審判과 場所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조금 여기서 못했던 사람이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與件이 우리가 客觀的으로 봐서 認定이된다 하는 그런 次元에서, 적어도 이거는 南北均衡의 側面에서 아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한사람씩은 적어도 包摂시키게 하자 하는것이 그원칙에도 맞지 않겠느냐?

그러나 記錄種目は 다르다 하는 그런 우리의 論理입니다.

北 (김세진): 그러니까 場所를 옮겨서 採點制 種目が 點數가 이렇게도 나오
고 저렇게도 나오기 때문인데 그럼 그런 경우가 記錄種目は 없습니까?

北 (장 응):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任先生님! 이렇게 합시다.

이제 그 貴側에서 내놓은 이제 말씀한 의도를 이제 알았습니다. 結局
우리 立場은, 우리 立場은 이 細部種目들, 出戰選手가 2名 以上인 경우
에는 南과 北에서 各其的으로 1名씩 包含되도록 한다. 그 이것이 좋은
案입니다. 좋은 案이에요.

그쪽에서 내놓은 좋은 案이고 그래서 이 좋은 案을 되도록 우리는
살려서 우리가 이미 合意한 雙方이 지금 意見一致가 되고 있는 均衡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한다하는 그 原則에 거저 이것이 貴側에서 거기
에 거저 맞게 이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理解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一般原則, 例하면 이 陸上이라든가 水泳같은데
그런데 適用하자고 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任先生하고 曹先生이
쪽 말씀하셨는데 거 一理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勝負에서 이 主觀的인 것이, 主觀的인 評價가 作
用하는 것과 이런거 記錄種目は 客觀性을 띠기 때문에 明白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 하는데는 조금 저도 異意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저 거 까놓고 말하면 아시아 저 世界選手權大會에서
一等한 사람이 또 아시아選手權에도 또 대체로 1등을 하고, 最終도 같
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 일단락 이것도 우리 거 다음 또 研究하기
로 누릅시다.

任先生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南 (曹英承): 그렇게 합시다. 異見이 있다 하는것만 認定을 하고 다음 넘
어 갑시다.

南 (任台淳): 아니 그런데 異見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部分에 대해서 가
만히 보면 전부 그 다음에 넘기는 事項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 뭐 實
務接觸에서…….

北 (장 응): 아 또 任先生! 아 討論을 해봐야 될게 아닙니까? 이번 지금
나와서 오늘 이거 첫 接觸이니까, 첫 接觸이니까 우리 뜻을 그쪽에서
또 理解하고 또 그쪽 뜻을 또 우리가 理解하고. 예.

南 (任台淳):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내 굳이 거 反對하려고 하는건 아
닌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적어도 이 條項 그러니까 細部種
目別 出戰選手가 2名 以上인 경우에는 南과 北에서 各其 적어도 1名씩
은 包含되도록한다.

이것은 우리 採點種目的 경우에는 이걸 該當시키는게 좋겠다 하는게
우리의 생각인데.

貴側의 경우에 다른 種目に 全般的으로 이걸 適用시키는 項으로 해놓
자 하게 되며는 난 적어도 이거 다른 條項들을 全面的으로 경우에 따
라서는 無效化시키는 結果로 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條項을 그 全體的인 條項으로 넣는다는 基本的으로 새
로운 問題가 提起된다 하는 것이고……

北 (김세진): 全體的인 條項에 넣는 너무 그 우리 저 球技種目에도 넣자는
거 그것이 아니니까 그건 지금 잘못하는데 우리 意思를……

南 (任台淳):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項目에다 넣을 것인가하는
問題는 細部種目別 特性을 考慮를 해서 넣고 안넣는 問題를 考慮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지금 거 우리 實務者들이기 때문에 分名하게 貴側
의 요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全般的으로 適用시킨다하며
는 지금 장선생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球技種目的 경우에는 該當이 않된
다고 分名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종목은 해당이 안되고 어느 種目이 該當된다 이렇게 뭐 規定할수도 없는것이고.

北 (장 웅): 그러니까 아니 任先生! 그러니까 내 討論해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南 (任台淳): 아니 그래서 나는 뭐냐하면 이것이 該當되는 部分이 꼭 어느 경우에는 이걸 該當시키는게 좋겠다는 意見을 그 項目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全般的인 項目으로 이 項目을 規定하자 하는건 맞지 않는다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느 어느 어느 種目에 이것 該當한다 하는것 討論합시다. 어느 어느 種目에 該當한다 하는 것을 거 該當하는 種目은 다 該當하는데 어느 어느 種目인가 하는걸 우리 合意하자 이거예요. 하여간 우리로서는 該當되는 것은 다 該當시켜놓았다. 그런데 그것을 留意을 하셔서.....

北 (김세진): 또 그런 條件엔 다 앞으로도 該當한다. 그런데 어느 어느 種目인가만 대라 요거합시다.

北 (장 웅): 다음을 鬪技種目입니다. 맞붙어 勝負를 가르는 種目인데 뭐 다른 意見없습죠?

南 (任台淳): 여긴 뭐 異意들이 없어질것 같구만.

北 (장 웅): 여기 거저 우리 뭐 거저 대폭 통째로 우리 받아들이겠습니까.

南 (任台淳): 이걸 뭐 우리가 貴側 것을 받아들인 거지 뭐 事實上 전부 이것.

北 (장 웅): 또 그러네, 또 그래 球技種目으로 넘어가겠습니다.

球技種目 「가」 일없고, 그다음에 「다」가 일없고 「나」에서 이런 그 意見이 있습니다.

「가」는 우리 그대로 同意하고 그다음에 그건 다른 問題없으니까 「다」

는 그 同意합니다.

여기에 「나」項에서 蹴球·籠球·排球·水球·送球·소프트볼·하키·세팍타 크로·野球의 경우에는 팀웍이 크게 要求되는 점을 감안하여 選拔戰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을 爲主로 하여 選拔하되 진팀의 選手도 一部 包含 되도록 한다. 여기에 2가지 여기에 지금 우리 意見이 있습니다.

南 (任台淳): 이게 記錄上 問題인데 나중에 우리 그 記錄上 불적에 이제 이걸 쪽 보아 나가지 좋게 이걸 한번 쪽 朗讀을 하고서 넘어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北 (장 웅): 그렇게 하자 이겁니까? 한번 저 球技種目 「가」 球技種目은 蹴球·籠球……

南 (任台淳): 아니 鬪技種目서부터 한번 쪽 뭐 힘드시면 내가 朗讀을 하고.

北 (장 웅): 예 제가 읽지요. 그 뭐. (3) 鬪技種目, (가) 鬪技種目은 拳鬪·柔術·레슬링·擊劍·카바디 등 5個 種目으로 한다. 그쪽에서 하는 복싱·柔道·레슬링·펜싱·카바디. 5個 種目으로 한다. 동의합니다.

(나) 그저 그쪽 말대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복싱·柔道·레슬링의 경우에는 選拔戰을 實施하여 우승을 거둔 選手를 爲主로 하여 選拔하되 合同訓練 期間中の 評價內容과 國際大會 戰績도 考慮한다.

이거 表現上 다른거는 거저 서로 各其 理解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評價內容이라는게 요거 저 하여튼 거저 그대로 거저 썼는데 (다)項, (다)項입니다.

南 (任台淳): 特別한 理由가 없으신거죠. 그러니까?

北 (장 웅): 예, 펜싱의 경우 擊劍의 경우에는 劍別로 「리그」전 우리는 聯盟戰이라 합니다. 聯盟戰 形式의 選拔戰을 實施하여 이긴 順位로 하니까 승률순으로 選拔한다. 거저 그대로 됐습니다.

다음 (라) 카바디의 경우에는 球技種目中 蹴球·籠球등의 例에 따른다.

됐습니까?

南 (任台淳) : 예.

北 (장 웅) : 球技種目인데 球技種目の 「가」項 입니다.

「사」, 「사」 球技種目, (가) 球技種目は 蹴球·籠球·卓球·水球·핸드볼·소프트볼·하키·세팍타크로·배드민턴·軟式庭球·庭球등 13個 種目으로 한다. 이 同意합니다. 다른 問題 없는거니까.

南 (任台淳) : 野球.

北 (장 웅) : 野球·野球도 13個 種目이니까. 그게 (나)인데 (나)에서 蹴球·籠球·排球·水球·핸드볼·소프트볼·하키·세팍타크로·野球的 경우에는 팀목이 크게 要求되는 점을 감안하여 選拔戰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을 爲主로 하여 選拔하되 진팀의 優秀選手도 一部 包含되도록 한다.

여기에 이제 거 우리 意見으로서는 먼저 2승을 거둔 팀이 거 팀이란 말이 거 뜻이 잘안겨오지 않습니다.

요걸 좀 說明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 진팀의 選手도 一部 包含되도록 한다. 그저 一部라는데 몇명이 되겠는다고? 이제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競技, 蹴球는 이번 男子蹴球는 20名이고 女子蹴球는 18名, 여기에서 一部는 얼마되고 籠球는 12名이니까 籠球 男子, 女子 12名이면 되겠는가? 이거이 問題가 있지않겠는가?

그래서 一部는 빼고 우리생각에는 우선 거 그쪽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이란 뜻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南 (任台淳) : 뭐 質問을 하셨으니까 曹先生이 한번 答변을 해보시죠.

南 (曹英承) : 알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3戰 2勝의 形式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常識的으로 그 왜 우리가 먼저 2勝, 3戰 2勝 대신에 먼저 2勝, 이렇게 하느냐 하면 選拔戰을 몇번 할기냐하는 그런 基本的인 原則이 아까 앞에 나와 있듯이 南北이 번갈아 적어도 1회 하면 2회 以上은 해야된다 하는 大原則은 訂해 놓고, 共同委員會에 가가지고 蹴球의 경우

에 無勝負를 認定하는 「게임」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2승을 거두려면 다섯번 더 競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일 共同委員會에서 아니 두번 以上은 하기는 하는데 3번으로 아니 네번으로 끝내자. 그대신 無勝負는 認定하는데 만일 4번째 가서도 無勝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勝負식」으로하자든지 이런건 具體的인 事項을 그때 定하는데 따라서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적어도 2번 以上은 한다 南과 北에서 그리고 그 無勝負 制度를 認定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 點은 共同委員會에 넘기는 그런 趣旨에서 3戰 2勝이라든지 이렇게 딱 못을 박지말고 「먼저 2勝을 거둔 팀」 이렇게 정해 놓음으로써 기타 具體的인 方法은 共同委員會에서 定할수 있겠끔 하자는 趣旨입니다.

北 (장 응): 그러니까 먼저 2승을 할때까지 競技는 繼續된다.

南 (任台淳): 그러니까 두번 選拔, 選拔戰에서 지금 뭐 앞에 練習競技나 여기에 의한 것은 아니고 「選拔戰에서 먼저 두번을 이긴팀」이렇게 되는 거죠.

南 (曹英承): 그러니까 例를 들어서 인제 蹴球의 경우에 平壤에서 한번하는데 貴側팀이 이겼다 또 서울에 와서 하는데 또 貴側팀이 나가는데 貴側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주 잘하는 選手도 있으니 그것은 그때가서 適切하게 아 率直하게 앞으로 인제 이왕 單一팀이 됐으니 가 나가서 우리가 우승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衷情에서 監督들이 딱 만나가지고 『아 이사람 이사람은 좀 놓자』 이렇게 議論해서 놓자하는 그런 趣旨의 文句가 바로 (나)項 條項입니다.

南 (任台淳): 그래 예컨대 어느 한쪽이 이제 한번 競技를 해서 이제 이겼는데 두번째로 가다보니까 비겨버렸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 비긴것 가지고는 그러면 두번 하는데서 첫번째 이긴팀만 나간다고 하는건 조금 너무 분명하지가 않지 않느냐? 實力差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제 어느 한팀에서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인제 다른 팀에서 이겨버렸다 그러면 세번을 했는데도 結論이 안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한번 해봐서 어느한팀이 이제 이기게 되며는 그럴경우는 네번을 해가지고 두번을 연거푸 이긴 팀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이죠.

北 (장 웅) : 그러니까 이렇게 理解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 어느 한側이 2勝을 거둘 때까지 選拔戰은 繼續된다. 그렇게 理解를 하면 되겠습니까?

南 (任台淳) : 그렇죠.

南 (曹英承) : 그런데 다만 말이죠 그럼 그렇게 無酌定 繼續하게 들거나 하는 問題는 技術的으로 共同委員會에서 定할수 있다 이거예요.

예컨대 蹴球의 경우도 無勝負는 認定하지 않는다. 처음에 할때 반드시 「勝負킵」까지 해서 勝負를 낸다 하고 정해버리면 두번밖에 거 세번 많이 가봐야 세번밖에 안잡니다.

한번 이기고 한번 지고 한번 이기고 결정이 날겁니다. 그렇지 않고 無勝部를 認定하자 하면 다섯번도 할수있고 여섯번도 할수 있는거죠.

北 (장 웅) : 그런 細部事項은 共同委員會의 所管에 屬한다?

南 (任台淳) : 그렇죠.

北 (김세진) : 그러니까 이거 물론 거 選拔方法에서 이런 方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뭐 우리 否認하는거 아닌데.

그러나 이 항목대로 이제 거 討論된 대로 繼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初期 이제 그 訓練監督과 「코치」들이 競技를 뭐 네번 하려고 했다. 세번 하려고 했다. 두번 하려고 했다. 거기 이제 그 計劃段階에서 規定해 좋는데 거 規定됐던 競技 안에서 勝負가 나지 않을수도있다 이거지요.

南 (曹英承) : 아니지요 아니지요. 안날 수가 없게 되지요.

南 (任台淳) : 나도록 만들어야지요.

北 (김세진) : 그게야 날수도 있지요. 거 어떻게 안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떡하겠는가 하는게 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競技를 했는데 이 먼저 5번 競技를 計劃했었다. 먼저 했는데는 졌단 말이에요. 두번, 아 後에 했는데는 세번을 견뎌단 말이에요. 또 越等하게 그것도 견디는 경우가 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競技가 任意에 따라 나가면서 마지막 段階에 잘하는 팀이 더 잘하는 팀이라고 봐야지 먼저 한 팀이 잘하는 팀으로 볼 수 없겠다.

이런 거를 경우를 놓고 보면 또 이 條項이 相當히 거 解明하기가 앞으로 좀 어려운 問題가 提起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거저 이긴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놔두면 된다. 이렇게 하건데 우리가 枚限 거 絶對的 인거로 볼 수는 없어요.

南 (任台淳) : 한번 해서 이긴팀을 내보내자 이런 얘가지요 지금.

北 (김세진) : 한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긴팀 나가야지.

南 (朴秀蒼) : 例를 들어서 3勝하는 …….

北 (김세진) : 건 뭐 그런거고 여기 무슨 뜻이 무슨 特別한게 있는게 아닌데 우리가 보면 좀 曖昧할 수 있겠다 앞으로.

北 (장 응)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우리 김세진 대표동지가 말하는게 뭐인가 하면 選拔戰에서 이긴 팀을 爲主로 하여 선발하되 이렇게 하면 어떨겠는가?

南 (朴秀蒼) : 그러니까 回數를 定하지 않으면 어떠냐인데 그런데 問題는 내 아침에도 實務者한테 물어 봤더니 그런 얘기에요. 지금 질문, 아니 저도 지금 질문하고 온 거예요.

이것을 굳이 2승이란 말을 해야 되느냐? 뭐 가까운 例로 5판 3승도 있다면 처음 두판은 내리 졌는데 나중의 세판은 이길수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는 요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사람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답을 합디다.

蹴球의 예라도 選拔戰을 갖는데 그 주어진 우리 한 2-3個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期間 또 여러가지 訓練 이런 것으로 봐서 더 以上 많은 競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程度, 2勝을 거둔 팀을 爲主로 한다. 이말 表現은 이런 것도 國際慣例에도 맞고 실지도 지금 해본다고 해도 더 以上 많은 數를 할 수가 없답니다.

北 (김세진) : 아니 내가 이제 말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겠어요? 몇번을 안해도 2勝이 먼저 안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北 (장 웅) :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건 조금 더 저 우리 생각합시다. 제가 조금 더 研究를 하겠는데 이 「一部」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一部」.

南 (朴秀蒼) : 共同委員會.

北 (장 웅) : 공동위원회에서 合意決定한다. 됐습니다.

南 (任台淳) : 먼저 2勝을 거둔팀에 대해서 이제 充分히 理解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北 (장 웅) : 任先生! 내 理解를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이거 조금 더 時間 餘裕를 주십시오. 해서 요건

南 (任台淳) : 檢討를 하시겠다!

北 (장 웅) : 예, 더 檢討를 하고 다음 넘어 갑시다. 그리고 다.

南 (任台淳) : 그리고 「一部」에 대해서도 이제 理解를 하신건가요?

北 (장 웅) : 예, 예. 그건 共同委員會에서 그걸 討論한다.

南 (朴秀蒼) : 그건 共同委員會로 넘어가는 거니까.

北 (장 웅) : 뭐 이렇게 討論하면 接近을

南 (任台淳) : 「一部」는 共同委員會로 넘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北 (장 웅) : 「一部」라는게 얼마나한 숫자인가 하는 것은

南(任台淳)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一部」에 대해서는 이제 異意
가 없으신지? 그러니까 「一部」에 대해 異意를 提起하셨는데 異意가 解消
되신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共同委員會로 넘기다고 했으니까.

北(장 응) : 예.

南(任台淳) : 그걸, 그 立場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2勝을 거둔팀에
대해서는 理解는 하셨는데 다른 方法의, 勝負를 決定하는데 다른 方法도
考慮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異意를 提起를 해가지고 지금 이걸 다
음으로 넘긴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基本的으로 여기에 同意를 하신건데 再檢討할 時間이 必要하겠다는 말
씀이지요?

北(장 응) : 조금, 조금 좀 餘裕를, 시간餘裕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南(任台淳) : 그러니까 餘裕를 가지겠다고 그러는 것이지 異意를 提起하시
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北(장 응) :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理解上 우리가

南(任台淳) : 조금 檢討가 필요하다?

北(장 응) : 이제 朴先生도 요지 曖昧해서 理解를 못했다고 하니까. 요
問題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소리니까.

南(任台淳) : 常識적으로 5戰 3勝, 뭐, 3戰 兩勝, 뭐 이렇게 보통 表現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것보다 科學적으로 2勝 이렇게 하는게 더 科學的
이라고 그래요.

北(허혁필) : 曹先生도 지금 理解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조금 研究를
해보라요. 사실 조금 問題가 있어요.

北(장 응) : 그다음 「다」項, 「다」項이지요? 卓球. 테니스, 배드민턴, 軟式
庭球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그전」 聯盟戰 型式의 選拔戰을 實施하여 勝
率順으로 選拔한다, 이에 뭐 同意합니다.

南(任台淳) : 異意없고.

北 (장 응) : 그다음 「마」項, 「마」項

南 (任台淳) : 가만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까 넘어 갔던 것을.

北 (장 응) : 아니 여기까지 하고?

南 (任台淳) : 아니 가만 계셔 보세요! 아까 넘어갔던 部分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넘어 갔지만 여기 전부 이제 關聯事項이기 때문에 아까것 採點種目中 『細部 種目別 出戰選手가 2名以上인 경우에는 南과 北에서 같이 적어도 1名씩은 포함되도록 한다』하는 條項이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진팀도 넣는다는 얘기는 한데 가서는 다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項目을 別途로 다시 이걸 獨立시켜서 넣어야 될 必要性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히 이러한 말을 해 뒤야 될 때 가서는 확실히 우리가 해 뒤야 되니까 採點種目中에만 이걸 넣으면 되겠다. 이런 立場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다음번 接觸때는 한번 그立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北 (장 응) : 음.

北 (김세진) : 아니 아까 그거 明白히 하고 넘어갔는데 거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種目が 어떤 種目도 있겠는가? 거저 研究를 해서 그런種目を 얘기를 하라고 그건 다 넘어갔으니까.

北 (장 응) : 그건 같은 얘기에요. 같은 얘깁니다. 그리고 마項 『어느 一方에 特定種目の 選手가 없거나 適合한 選手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選手를 보유하고 있는 側에서 선발한다』이거 同意합니다.

南 (任台淳) : 예.

北 (장 응) : 마項 選手選拔의 具體的 方法, 選拔戰 時期 이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時期, 競技用機具 競技規則, 審判選定등 其他細部的인 事項은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 결정한다. 同意를 합니다.

南 (任台淳) : 그러면 우리側 表現에 同意를 하시는 거지요?

北 (장 응) : 예, 예.

南 (任台淳) : 그러니까 이제 지난 5次會談때 貴側이 내놓으셨던 表現은 우리가 考慮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北 (장 응) : 예. 그런데 요게 지금 다르게 뭐 있습니까?

北 (김세진) : 뭐 다르게 있습니까?

南 (朴秀蒼) : 選拔戰의 횃수 이런 말들이.....

南 (任台淳) : 아니 뭐 場所나 횃수문제는 基本事項에서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젠 이젠 여기에다는 두지 않아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北 (장 응) : 同意합니다. 이렇게 돼서 選手選拔은 우리 다 내려갔죠. 다 내려갔습니다.

南 (任台淳) : 예. 아이고 選手選拔問題 한번 검토해보기 힘드는군요. 실무자들이 모이니까 그래도 각 條項을 읽어 보기라도 제대로 했구만,

北 (김세진) : 임선생님, 實務者接觸을 좀 자주 많이 하는게 좋겠습니다.

北 (장 응) : 그러니까 지금 5개 항목에서 意見不一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南 (任台淳) : 가만있자. 5개 항목에서 意見不一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의견불일치란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의견 불일치인가 하는 것이 분명치 않은 것이 몇가지가 사실 있어요.

北 (장 응) : 그래서

南 (任台淳) : 그래서 난 그것이 조금, 실무자들끼리 나왔기 때문에 얘긴데 앞으로는 각 項目에 대해서 왜 불일치다 하는것을 좀 明白하게 그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北 (장 응) : 그럼. 그렇게 했지요.

南 (任台淳) : 뭐 다 뜻은 같이 하는 건데 굳이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는가라던가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건 스포츠차원으로서 이걸 이

해할 수 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선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고.

北 (장 응) : 그래서 임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제가 정중히 提起를 하는데 이 다섯개 항을 共同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南 (任台淳) : 자. 지금 정식 提案입니까?

北 (장 응) : 우리 意見입니다.

南 (任台淳) : 意見입니까?

北 (장 응) : 귀측에 물어보는 겁니다.

南 (任台淳) : 물어보는 겁니까, 提案입니까?

北 (장 응) : 물어보는 겁니다.

南 (任台淳) : 물어보는 거죠? 아 그것 제안이라고 하셨으면 난 충격을 받았을 건데 물어보는 정도는 좋습니다.

北 (장 응) : 提案이나 물어보는 거나 뭐 (웃음)

南 (任台淳) : 그런게 아니죠.

北 (김세진) : 아, 뭐 이게 協議機關인데

南 (任台淳) : 5개 문제를 共同委員會로 넘기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결코 그건 그럴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本會談을 9個月동안 걸쳐 가지고 다섯차례에 會談을 했습니다.

會談을 하는 過程에서 사실 呼稱問題라든가 단기, 단기문제에 基本的인 合意를 이룩한 것은 그야말로 民族的인 和解와 團合이라는 성과를 民族 앞에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밖에없는것은 이제 아시안게임이 불과 내년 5月달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몇달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會談을 빨리 결말을 지워야지만 이회담이 빨리

妥結이 되어야지만 共同委員會가 構成이되고 合同訓練이 가능해지고 또 합동훈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選手選拔을 위해서 상당기간을, 상당기간 選拔戰도 이게 하루이틀 되는건 아닙니다.

選拔戰도 실시를 해야되고 그러면 이제 選手選拔이 되고 나면 選手團을 또 構成을 해야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선수단 구성을 하면 또 強化和訓練을 실시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과정이 짝 있는데 이것을 놓고 불 적에 빨리 해결하려면 本會談에서 기본적으로 이견이 있는것을 妥結을 지어놓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귀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本會談에서 意見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共同委員會로 넘기자 하는 의견을 이번 뿐이 아니라 지난번에서 부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드시 選拔戰은 이 體育問題에 있어서 아주 本質問題인 동시에 본질문제에 있어서 核心的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문제를 토의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서두에 나왔던 選拔戰을 어떠한 刑式과 內容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장소나 그 선발전을 往來를 해서 할 것인가? 어느 한 곳에서 할 것인가?

또 최소한도 몇번 이상을 해야 되겠는가?

적어도 이런 基本的인 原則的인 내용을 이 本會談에서 규정을 지어 놓지않고 이것을 共同委員會에 넘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이 본 회담의 會談代表들이 責任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회담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다른 분야와 보조를 맞추고 또 그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질러서 문제를 解決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核心的인 부분에 대해서 相互意見을 분명히 제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意見接勤을 시키고 그것을 확실하게 합의를 해서 본회담을 이론의 여지가 없이 타결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民族앞에 발표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중요한 문제는 뒤로 미루어놓은채 우리가 合意한 것으로 했다. 이렇게 되며는 사실 그동안에 團歌·團旗·呼稱問題에서 合意를 해놓았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면 뒤에 공동위원회에 가가지고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이러한 결과가 혹시라도 오는 일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 본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합의를 해놓고 넘어가자.

그런데 귀측은 얘기하기를 사실 體育本質問題에 대해서 큰 의견차이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우리가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어도 이번 연말이 가기전에는 이 基本問題에 대해서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實務代表 接觸의 실무자들끼리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北 (장 웅) : 제가 좀 말씀 드리죠.

우리가 이제 選手選拔과 관련한 5개 사항들을 共同委員會에 넘기자고 한 것은 이미 5차례 걸쳐서 진행된 본 회담들에서 공동위원회에 넘길 사항들을 일단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견해에 의하면 이제 任先生도 말씀한 바와 같이 본회담이 내년 에 타결을 봐서 당장 다가오는 제11차 아시아 競技大會에 민족 유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한 이런 준비를 다그쳐야할 이런 과제가 눈앞에 박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細部的인 問題를 가지고 實務代表接觸에서 시간을 끌고 또 本會談까지 지체 시켜서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으로 부

터 이런 문제들을 共同委員會에 넘겨놓고 역시 세부사항이니까. 공동위원회에 넘겨놓고 다른문제들을 合意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우리의 입장 입니다.

그러니까 任先生 말씀을 들어보면 귀측에서 이항들은 공동위원회에 넘길 수 없다 하는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南 (任台淳) : 아, 그렇습니다.

北 (장 응)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귀측에서 오늘 많이 任先生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뭐 그렇게 體育人들끼리 모여앉아서 짜짜하니 쪼그만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까 우리 또 讓步를 하지요. 양보하겠습니다.

南 (任台淳) : 무엇을 양보 하시겠습니까?

北 (장 응) : 그래서 選手選拔 문제에 있어서 5개항이 타결을 보지 못했는데 「4. 선수선발」 다 項에 동의합니까?

南 (任台淳) : 「4. 選手選拔」 다項 나項이 아니라 다항에 동의합니다.

北 (장 응) : 다 項에 동의합니다.

南 (任台淳) : 예, 예.

北 (장 응) : 계속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데

南 (任台淳) : 이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지만 同意 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進展이라고 평가

北 (장 응) : 또 우리가 양보를 하니까 진전이 되었지 (웃음)

南 (任台淳) : 아니, 의견이 같다고 하면서 여기에 同意를 안하셨거든요.

北 (장 응) : 근본적인 의견차이야 있었지요. 그다음에

北 (김세진) : 그쪽에서도 몇개 동의하시지요, 우리도 동의를 하겠으니까

北 (장 응) : 몇가지 양보를 해야지 뭐, 또 양보를 하겠습니다.

記錄種目에서 아까 논의가 많이 된 싸이클, 조정, 커누, 요트 團體競

技에서는 팀웍이 크게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서 選拔戰에서 勝利한 팀을 選拔한다. 동의합니다.

5개항이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球技種目에서

南 (曹英承) : 아니, 채점종목

北 (장 웅) : 그건 未決입니다. 보류합시다.

5개항 중에서 지금

南 (任台淳) : 나 項하고 「기록종목」의 (다)項 하고.....

北 (장 웅) : 「구기종목」입니다. 8페이지 球技種目에서 蹴球, 籠球, 水球,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세팍타크로, 野球의 경우에는 팀웍이 크게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選拔戰에서 먼저 2勝을 거둔팀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진팀의 우수選手도 일부포함되도록 한다.

同意합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며는 선수 선발문제에서 지금 2개항이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南 (任台淳) : 2개항이 남아 있습니다.

北 (장 웅) : 맞습니까?

南 (曹英承) : 예.

北 (김세진) : 2個項이야 귀측에서 양보해야지.

北 (장 웅) : 양보해야지 귀측에서도 양보해야지 (웃음)

北 (김세진) : 그런게 좀 있어야 이제 임선생이 이야기 한것처럼 연내에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지.....

北 (장 웅) : 다음 訓練에 넘어갑시다. 「선수훈련」

北 (김세진) : 귀측에서 어느것 양보할 게 없소?

北 (장 웅) : 訓練도 하자는 겁니다.

南 (任台淳) : 아니 이게, 지금 讓步案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또 양보 하라고 그러십니까.

北 (장 웅) : 아니, 이거 그대로 가져 나왔지

임선생 야, 이거 (웃음)

北 (김세진) : 任先生 욕심이 땅보다 더 두껍소 좌우간 …….

南 (任台淳) : 욕심이라니 …….

北 (장 웅) : 원래 축구는 제일 대범한 종목의 하나인데 …….

南 (曹英承) : 장대표선생! 말씀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選手選拔項目에 가서 상당히 많은 種目들이 있었는데 결국 5個中에서 3개정도는 貴側에서 受用을 하시고 결국 2개만 남았는데 이 2개 部分은 貴側에서 아까 共同委員會에 5개를 다 넘기자 했다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3개는 우리側안을 받아 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2개 部分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北 (장 웅) : 현재 우리의 立場은 共同委員會에 넘기자는 立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상 또 研究합시다.

南 (曹英承) :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北 (김세진) : 귀측에서 좀 받아들이라 이거지요.

南 (任台淳) : 그럼 여기에 대해서 …….

北 (장 웅) : 이젠 지나 간 것이니까.

南 (任台淳) : 이걸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가지가 남아있는데, 사실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문제를 공동위원회로 넘기자.

北 (장 웅) : 아, 또, 또, 다시또.

南 (任台淳) : 아니, 아니 공동위원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는 雙方間에 基本的으로 見解差異가 있는거다 생각을 합니다.

北 (장 웅) : 있습니다.

南 (任台淳) : 共同委員會로 넘기자는 주장과 넘기면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

이 완전히 상반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 「선수선발」 나항과 관련해 가지고 귀측이 公開냐 非公開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提示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의견으로 생각을해서 우리의 의견과 대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지금 다른항목에 귀측이 동의한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사실 「채점종목」의 (다) 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귀측이 동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장 웅) :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南(任台淳) : 거기에 대해서도 귀측이 同意할 것을 기대 하면서 또 다음에 모였을 적에는 나항에 대해서 좋은 토의의 결과가 나오게 되기를 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꽤 되었는데 우리가 점심도 안먹으면서 이거 할 것도 아닌거고 오늘 여기까지 토의하고 다음 회담부터는 이거 선수훈련부터 하는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음 접촉에 한번 넘겨서 나눠서 하면 어떻겠어요? 분류를 해가지고.

北(장 웅) : 예. 뭐. 다른 意見…….

南(任台淳) : 아니 더 하셔야 되겠으면 뭐 하셔도 좋고

北(장 웅) : 네. 다른 건 없지요.

北(김세진) : 그럼 빨리 빨리 합시다. 다음번 언제 할건지?

北(장 웅) : 다음번 會談 내일, 내일 할까요? 어떻게 잡겠습니까?

南(任台淳) : 글썄, 내일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여러차례 모인다고 해서 問題가 다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北(김세진) : 아니지요. 오늘 모이니까 얼마나, ... 이렇게 되면야...

北(장 웅) : 오늘 뭐 아주 成果가 많습니다.

南(任台淳) : 이렇게 쪽 해 나가면 빨리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뭐 이번 접촉을 6次會談이 22일로 날짜가 잡혀 있으니 그 어간에 그저 앞으로 그저 한두 차례만 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貴側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지 이걸 물론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생각을 일단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날짜問題에 대해서 귀측은 뭐 내일, 내일, 또 오늘 모이고 내일 모이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겠어요?

또 貴側도 檢討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 다음에 모이면 選手訓練 이후의 問題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北(장 웅) : 그러니까 날짜부터 말씀하십시오.

南(任台淳) : 앞의 부분도 또 討議를 다 하테니까 우리로서는 5일내지 7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貴側은?

北(장 웅) : 5일, 5일로 합지요? 5일로 하잡니까?

北(김세진) : 5일이 水曜日이지요?

南(任台淳) : 火曜日 되지, 아마.

北(장 웅) : 아, 화요일이면 안돼요. 會談 안돼는데.

南(任台淳) : 火曜日이면 무슨 問題가 있나?

南(曹英承) : 4일로 하지요.

南(任台淳) : 월요일은 좀 아무래도 지장이 좀 있겠지요?

北(장 웅) : 그저 말씀 하십시오. 우린 뭐.

南(任台淳) : 5일, 5일날은 여기서 會談이 불가능한가요?

南(曹英承) : 이 장소가, 이 장소가 뭐 5일날은 화요일마다 그거해서.....

南(任台淳) : 조대표는 어느날이 좋겠어요? 다 사정들이 많아가지고(웃음)

南(曹英承) : 그 사정보다도 인제,

北(장 응) : 여기 입장, 또 여기 사정도 있으니까.

南(任台淳) : 여기 사정도 있을거고, 또 지금 뭐냐하면 지금 사정이라는게
뭐냐하면 또 뭐 지금 赤十字 행사들이 그 다음에 짝 連結이 되어 있
거든요.

南(曹英承) : 12월8일부터는 연결이 되어 있지요.

南(任台淳) : 사실상 8일 이후는 그 다음주까지가 도저히 어렵고, 자 그러
면 4일날 어떻겠어요?

北(김세진) : 4일날이면.

南(曹英承) : 월요일이지요.

北(김세진) : 아 月曜日되는가?

北(장 응) : 月曜日は 우리가 또 내려오는게 日曜日이니까 일요일은 또 늘
아야 되니까. 6日날 합시다, 6일날.

南(任台淳) : 6일날, 6일날.

北(김세진) : 6일날 합시다.

南(任台淳) : 다음 6일날 하지요. 뭐 이런거야 우리 妥協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北(장 응) : 그래서 그 저 오늘 그 成果가 많았는데 전진이 많았습니다.
그렇습지요?

전진이 많았는데 결국 그 저 選手選抜안에서 다섯개항 중에서 우리가
세개를, 세항을 양보를 해서 妥結이 됐는데 이것은 實務代表接觸에서 큰
成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잘 토론해 나가면 本會談의 年內 妥結을 보장하
는데 큰 成果가 기대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리 代表들의 생각은 다음 接觸 때 나와서 貴側에서
좀 더 誠意와 積極性을 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호상존중하면서,
호상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實務代表接觸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다음번 접촉에서 貴側이 좀더 이런 實務問題 討議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이런 그 성의를 보여주리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南(任台淳) :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거 우리로서 實務代表接觸을 첫번째 갖고 생각이 되는 것은 사실 이 實務代表接觸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意味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하루 빨리 本會談을 妥結짓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시간에 쫓기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실무대표접촉을 했는데 오늘 실무대표접촉이 진행된 상황을 놓고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本會談의 경우보다 實務的으로 討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런점에서 評價를 합니다.

다음 그 討議內容과 관련해서 오늘 몇가지 義見接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놓고 얘기해서 다소 염려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체육 本質問題와 관련해서 특히 그 核心인 選手選拔問題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本會談에서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해서 이것을 共同委員會로 넘기자 이렇게 이적이 實務接觸에서까지도 귀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北京 아시아 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해서 나가자고 하는데 의견이 일치돼서 모였으면 이것을 말로서 나간다면, 또는 뭐 그저 合意했다든가 이것을 民族 앞에 그저 말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單一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南北을 오고 가고, 또 난 그 600名 700名の 인원이 이제 訓練을 위해서 남북을 오가고 해서 이제 현지에 가서 훈련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귀측이 基本

的으로는 同意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남북의 길을 트고 開放의 길을 트는데 있어서도 體育人들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과연 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자꾸 거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할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共同委員會에 넘겨놓고 보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털어놓고 얘기해서 귀측의 그 實踐意志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도 아직도 疑問을 풀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實務接觸인 만큼 다음에서 이제 2次, 3次, 몇次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접촉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는 전부 떠나서 體育 本質的인 問題는 體育精神, 스포츠 精神을 중심으로 하여, 스포츠 정신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나와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저.

적어도 이제 다음 접촉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뭐 10개항 놓고 보면 合理的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다음번 接觸에서는 좋은 결실을 맺어지기를 그래서 本會談, 6次 會談이 열리게 되면 사실상 나는 6次本會談에서 본회담의 기본 문제가 基本的으로 妥結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실무대표접촉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北 (허혁필) : 실컷 잘해놓고서 마지막에가서 뭐.

北 (장 웅) : 이제까지 임선생 實務代表接觸에서는 잘해오시다가 마지막에 그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唯一팀 構成하려는 意志가 우리쪽에 있는가 말씀도 하시고 의심스럽다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비위에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唯一팀 가타부타 말을 많이 안하겠는데 이젠 일단 끝났으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을 밝히면 유일팀 구성을 제기한 것도 우리쪽이고 오늘 회담에서 명백히 보여준 바와같이 이제 임선생 아주 좋은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했죠.

말로써만 아니라 實踐行動으로서 보여준다.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唯一팀 構成을 위한 회담을 우리쪽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오늘 實務代表接觸에서도 選手選拔 5개項 의견 불일치가 있는데서 3個項을 우리가 讓步를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으로 귀측에서 다음번 나오실때 좀 더 성의와 아량을 가지고 自己案만, 自己案이라고, 이게 雙方會談이니까, 고집하지 마시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호상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實務代表接觸이 民族이 期待하는 바대로 成果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번 회담에 그런 좋은 일들을 가지고 나와 주시길 기대합니다.

南(任台淳) : 자, 그러면 올라가시려면 힘드시겠네.

北(장 응) : 임선생 수고했습니다.

南(曹英承) : 다음에 만나서 또 많은

南(任台淳) : 내일 평양들 올라가십니까?

北(장 응) : 오늘 좀 쉬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또 봅시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 : 1989. 12. 1 (金) 13:20~13:47
-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辯 : 任台淳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아시다시피 非公開裡에 第1次 實務代表接觸을 가졌습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進行이 되었는데 이번 實務接觸에서는 10個項의 單一팀 構成·參加放案을 놓고 項目 하나하나에 대해서 쌍방의 입장을 交換을 했습니다.

우선 合意된 내용이라든가 意見一致 事項을 再確認을 하고 그리고 이제 意見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討議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議題 10個項 중 第1項 呼稱問題와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이번에도 우리말로 「코리아」, 英語로 「KOREA」라고 한다는데는 異意가 없었습니다.

中國말로도 우리말 발음대로 「코리아」로 하고 「高麗」로는 쓰지 않는다 하는 말을 우리 明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北側은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明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異意를 제기 했고 또 그리고 漢字表示를 「可里亞」, 「可禮亞」를 提案해 놓고 이것을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合意한 글자를 提案을 하자 했는데 대해서도 北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討議할 것을 反對를 해서 이 문제는 또 토의를 留保를 해 놓은 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團旗問題와 관련해 『團旗는 이미 흰색바탕에 하늘색 地圖를 그려놓는 것으로 한다』하는데 合意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團旗問題와 관련해 團旗는 韓半島와 濟州道를 그려놓고 상징적으로 그려놓고 그

밖에 이제 독도라든가 마안도, 마라도, 초도 이러한 여러 섬들은 省略하기로 한다 하는 말을 合意文案에, 基本合意안에 넣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北韓側이 여기에 대해서는 異意가 없다는 立場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團歌는 이미 문제가 없이 合意를 한거고, 그리고서 10個項을 다 토의를 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오늘은 選手選拔 그리고 選手訓練問題까지 이제 토의를 하려고 하다가 選手選拔內容만을 전반적으로 토의를 하고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個項은 우리側이 南側과 北側의 案을 對比를 해서 表를 만들어가지고 북측에도 건네주고 그것을 중심으로 토의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基礎討議에서는 우리側 文案을 가지고 토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選手選拔問題도 우리측 文案을 가지고 討議를 했는데 우리側 文案이 애당초 南北間에 討議한 內容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서 作成을 했던 관계로 해서 나중에 표현상 南北이나 北南이나 이러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雙方의 立場이 反映된 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토의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個項 立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記者先生님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選手選拔에서 意見이 對立이 되었던 것이 다섯가지가 됩니다. 北側이 異意를 제기했다고 우리側이 짜 놓은 案에 대해서 北側이 이의를 提起했던 것이 다섯가지 項目인데 그 가운데서 세가지 項目에 대해서는 北側이 우리側의 설명을 들은 후에 그렇다며는 이해를 하겠다 해서 理解를 表示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同意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이번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개 項目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며는 두번째 選手選拔에 「나」項이 되겠습니다마는 「나」項은 選手選拔戰의 概念이나 形式과 관련

되는 문제입니다.

『選拔戰은 合同訓練이 끝나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南北에 일정한 場所·時期·競技規則 등에 따라가지고 南北選手間에 公開裡에 실시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北側이 문제를 삼은 것은 『南北選手間에 公開裡에 실시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南北選手間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南北選手間에 지금 單一팀 구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北側이 거기에 대해서도 異意를 제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걸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立場이었습시다마는 오늘 實務接觸에서는 거기까지도 同意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면서도 그러나 公開裡에 하는 건 꼭 非公開裡에 해야 되겠다. 選拔戰은 非公開裡에 해야되겠다 하는 입장을 이번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런 뿐만 아니라 北側은 『非公開裡에 하자고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共同委員會로 넘겨 놓자』 이러한 입장을 오늘 회담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選手選拔戰을 南北을 오가면서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서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여러가지 疑問을 제기를 했습시다마는 우리側의 설명을 듣고서 왜냐하면 『南北을 오가면서 번갈아』하는 얘기는 이미 合同訓練 過程에서 合意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을 것이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1회 以上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選拔戰은 南과 北에서 公平하게 한 번씩을 갖자. 어느 한쪽에서만 하며는 다른側의 선수가 不利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씩을 갖자는 최소한도의 숫자를 제시한 것이다』하는 설명을 해서 北側이 거기에 대해서 納得을 했습니다.

다음의 하나는 우리측 採點種目에서 두명 이상의 선수가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진측에서도 한사람 정도는 넣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採點種目

에다 넣어 놓은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北側은 이것을 『全種目에 대해서 이 條項을 해당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採點種目이라 하는 것은 다른 球技種目이나 闘技種目 그리고 記錄種目は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과는 달리 이러한 세가지 종류는 主觀的이 아니고 客觀的으로 結果가 나오는 건데 採點種目 만큼은 이게 主觀的인 評價에 의해서 審判들의 主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고려를 하되 다른 種目の 경우에는 물론 南北의 선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各 種目別 특성을 전부 考慮를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자 하는 말을 우리가 條項마다 분명히 이미 넣어놓았다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렇게 共通된 條項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北側은 理解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基本的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異意를 제기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異意를 제기하는 것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하고서 오늘 選手選抜問題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 北側이 또 처음에 異意를 제기했던 부분이 두가지가 더 있죠.

뭐냐하며는 記錄種目の 團體競技, 싸이클, 카누, 요트, 漕艇 이 團體競技를 이긴팀이 나가도록 하자 하는데 대해서 처음에 거기에다가도 진팀을 넣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요트경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람을, 南北사람을 바꿔 가지고 집어넣어서 訓練을 하려고 그러면 專門家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호흡을 맞추고 할려면 一年訓練을 필요를 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案에 대해서 北側이 納得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球技種目中서 축구, 배구 등등 球技種目中서 이제 2勝을 먼저 거둔 팀을 위주로 해가지고 選手를 선발하고, 진팀의 일부도 포함시킨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異意를 제기 했었는데 2勝이라는 게 뭐냐

하는데 대해서 이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異意를 제기 했었습니다마는 2勝이라고 하는 것은 삼판양승이나 오판삼승이나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2번을 연속해서 選拔競技에서 이긴팀을 선발하자는 숫자를 얘기한 것이니까

이것이 뭐 選拔戰 總 回數와는 관계가 없는거다 하는 설명을 한걸로 해서 北側도 납득이 갔고 또 그리고 이제 진팀을 일부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긴팀을 위주로 해서 選拔할려면 진팀은 이긴팀 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건 既定事實인 것이고 그러면 일부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건 共同委員會로 넘기자는 의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므로 해서 北側이 納得을 했습니다.

그래서 北側이 지금 選手選拔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同意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나項의 基本概念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採點種目に 경우와 마찬가지로 2名 이상 나가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한명씩은 상대측도 들어갈도록 하자는 것을 全項目에다 집어 넣자고 하는 얘기를 한부분을 合意가 안된 상태로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토의된 건 거기까지가 토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會談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北側에 다가가도 會談이 끝날 무렵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제 選拔戰을 어떠한 形式과 方法으로 하느냐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體育本質問題인 동시에 그 본질문제에서도 核心的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회담에서 해결하지를 않고 共同委員會로 넘기자 하는 것은 會談代表들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本會談에서 解決을 하고 넘어가야지만 나중에 共同委員會가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고 合同訓練이라든가 그밖에 選手選拔戰 등등 실천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實踐的인 意志를 좀 더 보여주는 입장을 가지고 會談場에 나올 것을 北韓側에 당부를 했습니다.

우선 會談에서 진행된 내용을 이 정도로 제가 소개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接觸問題인데 12月6日날 水曜日 되겠습니다. 12月6日날 갖기로 쌍방간에 합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以上입니다.

2. 質疑·應答

質問：오늘 意見接見을 본 게 어느 부분입니까?

答辯：그러니까 選手 10個項을 전반 實務接觸의 성격문제와 관련해서 10個項 전반을 토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異見調整을 해나간다는 實務接觸의 運營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意見이 一致가 됐는데 지금 團旗問題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집어 넣는다는데 의견이 일치됐고.

그리고 選手選拔問題와 관련해가지고 5個項에 北韓側이 처음에는 異意를 제기를 했다가 두가지 項만 남겨놓고 세가지에는 동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意見差異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北韓側은 共同委員會로 넘기자는 입장을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本會談에 解決을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 차이를 나타낸채로 헤어졌습니다.

質問：그런데 아까 團旗말씀을 하셨는데 團旗部分에 대해서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地圖를 그려넣자 그런 얘기 승의를 본 내용이고 韓半島가 韓半島에서 濟州道 以外の 다른 島嶼는 표시하지 않고요?

答辯：예, 그것은 明文化 하는데 승이었다는 얘기죠.

質問：文書로서 할 때 文案을 그 안에 집어 넣자는 部分에 대해서 充分히 승의를 본 것입니까?

答辯 : 예, 그렇지요.

質問 : 지금 여기서 文案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過程 아십니까?

答辯 : 지금은 文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의 合意文을 앞으로 만들 수 있는 土臺를 지금 마련하는 作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質問 : 오늘 실무회담에서 토의하시는 문제가 10個項 중에서 選手選拔에 관한 문제가 4項인데, 4項만 討議한 겁니까?

答辯 : 4項까지 구체적인 討議를 했습니다.

質問 : 그런데 이게 우리 呼稱에서 말이죠, 呼稱問題가 이제 5次 會談때 일단 양측에서 합의를 보셨지요? 4次 會談이죠?

答辯 : 4次 會談때 합의를 基本合意를 보고 구체적인 合意를 해가지고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나는 具體的인 事項에 대해선 異見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質問 : 實務會談에서도 물론 양쪽에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비롯해서 1項부터 전부 나왔겠지만 呼稱問題가 지금 漢字 비교하는 문제가 걸림이 잦아요.

우리側에서는 漢字表記까지 쌍방이 합의를 하며는 하지 않을 성격이다 제시할 수 있고 그건 만약 제시한다고 보면 그렇고 雙方合意를 제시한 거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기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가 合意事項을 정리하는 과정상 필요해서 다시 한번 1項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이번에 實務接觸에서 이것도 아직 완전한 漢字表記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안되었는데 다음 6日날 나와서 또 合意事項 또 呼稱問題 얘기하겠습니까?

答辯 : 다음 6日날 모이게 되며는 지금 4項까지 討議가 되었으니까 5項부터 토의를 해나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전부 討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質問：1項 여전히 呼稱問題에 대해서 항상 이 문제는 그냥 留保된 상태가 아닙니까?

答辯：留保된 상태 말하자면 留保된 狀態로 남아 있습니다.

質問：오늘 저쪽하고 만나서 지금까지는 다섯번에 쌍방 다섯 代表가 本會談 자리에서 들어갈 問題 해놓았는데 결국은 대표중에서 세 분이 나오신거니까 그래도 수가 줄어든 셈인데 세분씩 나와서 實務接觸을 1次로 가지신 다음에 앞으로 會談 展望이라든지 實務接觸의 展望이라든지 會議方法이라든지 해서 느끼신 점은 어떻게 있습니까?

答辯：예, 전에 非公開裡에 會談을 進行을 하고 또 역시 대표중에서도 實務代表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10個項 條項을 그야말로 實務的으로 토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서로가 상당히 效果的이었다는 意見を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이 회담도 단순한 實務的인 의견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에 異見을 調整을 하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異見을 調整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역시 現時點에서 볼 적에는 北韓側이 外形上에 합의를 발표를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積極的이고 빨리 발표를 하자, 이런 입장을 자꾸 표시를 하는데 公開裡 會談을 할 적에도 그렇고 非公開裡 會談을 할 때도 그렇고 입장이 똑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立場은 本質問題에 대해서 서로 애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選拔戰을 公開裡에 할것인가 非公開裡에 할것인가 하게 되며는 이것을 확실하게 서로가 의견을 떨어놓고 얘기를 해서 合意를 보아가지고 넘어가자는 것이고, 北韓側은 그것을 그대로 合의한, 基本的으로 合의된 것으로 해가지고 넘겨놓고 보자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우리는 실천을 보장하고 實踐意志를 닦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北韓側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그러한 立場을 止揚을 해야 된다는 것을 促求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측이 잘 納得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今年末 내년 1월까지를 우리로는 時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때 이전에 實踐意志를 北韓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非公開問題에 대해서 우리측에 동의해오는 것이 스포츠차원에서 볼 적에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이것을 共同委員會로 넘겨 놓아야지만 될 사항이다 하는 立場을 계속 가지고 나온다면은 우리로서는 北側의 實踐意志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역시 實務會談에서 느꼈습니다.

質問 : 저희는 저 오늘 任代表께서 브리핑하신 내용만 듣고는 말이죠, 實務接觸이라는 것을 지금 本會談하고는 달리 본회담에서 쌍방간 진전에 방해가 되고 거기에서 支障을 招來하는 걸가지 쳐가면서 意見도 調整하고 해가면서 뭐가 본회담에 화제가 진전을 기대하기가 그건 본회담하고 성격이 다른 회담입니다.

안그러면 브리핑하신데 제가 느낀 건 서로 意見 開陳方法이나 회담에 어프로치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 代表委員들이 각 다섯분씩이었는데 여섯사람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非公開로 회담외에는 사실은 본회담에서 회의진행하고 의견 개진하고 한거나 다름이 없는 것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實務接觸 非公開로 한 實務接觸에서 과연 본회담에 어떤 추출을 위한 그 무어가 나오겠는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 뿐만 아니라 兩側 代表들이 實務接觸을 어떠한 方向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다같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쪽은 아시겠는데 얘기를 듣고 느낀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별도로 實務接觸이라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고 本會談을 약간 縮小한 그런 정도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答辯(曹英承) : 그래서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서 그렇지 2시간 3시간 정도 얘기한 내용을 다 얘기 못해서 그런거고 우선 크게 변화된 모습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다섯명의 公開會談을 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정리한 文書를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하나목 하나목 짚어가면서 내려가는 討論方式은 채택되지 못합니다. 우선 그게 크게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 많은 진전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項目 하나하나를 合意했느냐 합의 안했느냐 그것 계수가 문제가 항목에 담고 있는 그 뜻을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公開裡에 할 수 없는 얘기를 몇가지 주고 받으면서 例示해가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서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意見差異가 明白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公開裡에 다섯명이 있으면 그런 접근 어렵습니다. 그리 큰 두가지 모습 진전이 있었던 實務代表接觸이었습니다.

質問 : 實務接觸의 필요성은 효과도 있고 進展 있습니까?

答辯 : 實務接觸을 우선 能率的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本會談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회의형태가 마련되었다고 쌍방이 공감을 했고 討議의 內容도 10個項 전반에 대해서 異見調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 범위도 포괄적인 회담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會議形態 問題는 쌍방간에 合意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제 더 質問이 없지요? 수고했습니다.